

碩士學位論文

조선시대 친잠례(親蠶禮) 및 친잠례의
화장과 치장에 관한 연구(研究)

2001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卓 溶 柱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韓 英 淑

조선후대 친잠례(親蠶禮) 및 친잠례의
화장과 치장에 관한 연구(研究)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8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卓 溶 柱

卓溶柱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認定함

2001年 8月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目 次

I. 序 論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2
II. 친잠례(親蠶禮)의 기원과 제도의 변천 고찰	4
1. 친잠례의 기원과 의미	4
2. 조선시대 친잠례와 선잠제의 제도화 변천 고찰	6
1) 전 기	6
2) 중 기	9
3) 후 기	12
4) 조선시대 이후의 발전상	14
3. 친잠례의 의례구조	15
1) 조선전기의 친잠례	15
2) 조선후기의 친잠례	31
III. 친잠례의 화장과 치장의 특성	47
1. 화장	47
2. 두발양식과 수식 (首飾)	51
3. 장신구	65
IV. 친잠의례 구조의 패션이벤트적 구성의 응용	68
V. 結 論	74
참고문헌	76
ABSTRACT	80

그림 목차

[그림 1] 누에 모습의 서울 남산	7
[그림 2] 어친잠실	10
[그림 3] 선잠단지	20
[그림 4] 선잠제향의식도(현행)	20
[그림 5] 제관이 축음을 모시고 오는 의식	20
[그림 6] 제관이 제수를 진설하는 의식	20
[그림 7] 제관이 준회를 진설하는 의식	21
[그림 8] 선잠제 전향축례	21
[그림 9] 행례전 제관취위	21
[그림 10] 제례약	22
[그림 11] 선잠제 취타대 행렬	22
[그림 12] 선잠왕비의 선잠단지 행차	22
[그림 13] 선잠 제향을 참관하는 선잠왕비	23
[그림 14] 선잠제 당산관 정장	23
[그림 15] 선잠제 면목 후면	23
[그림 16] 친잠례 시 사용도구 - 산뢰	26
[그림 17] 친잠례 시 사용도구 - 용작	26
[그림 18] 친잠례 시 사용도구 - 작	26
[그림 19] 친잠례 시 사용도구 - 점	26
[그림 20] 친잠례 시 사용도구 - 시령	27
[그림 21] 친잠례 시 사용도구 - 잠박	27
[그림 22] 친잠례 시 사용도구 - 갈고리	27
[그림 23] 친잠례 시 사용도구 - 광주리	27
[그림 24] 성종대의 왕비 국의	28
[그림 25] 친잠례 재연행사 (작헌례)	37
[그림 26] 친잠례 재연행사 (축판태우기)	37
[그림 27] 친잠례 재연행사 (채상의)	39

[그림 28] 친잠례 재연행사	39
[그림 29] 친잠례 재연행사중 왕비입장	42
[그림 30] 친잠례 재연행사중 내·외 명부입장	42
[그림 31] 친잠례 재연행사중 왕비입장	43
[그림 32] 영조대의 왕비 국의	43
[그림 33] 영조대의 후궁과 공주의 의상	43
[그림 34] 큰머리	54
[그림 35] 어여머리	54
[그림 36] 조심머리	55
[그림 37] 첩지머리	55
[그림 38] 대수	55
[그림 39] 새앙머리	56
[그림 40] 화관	60
[그림 41] 족두리	60
[그림 42] 비녀	61
[그림 43] 첩지	61
[그림 44] 떨잠	62
[그림 45] 침	62
[그림 46] 빗치개	63
[그림 47] 땡기	63
[그림 48] 뒤꽂이	64
[그림 49] 귀이개	64
[그림 50] 노리개	67
[그림 51] 지환	67
[그림 52] 조선왕조 순종황후 순정효황후의 친잠후 기념촬영	71
[그림 53] 조선조 순정효황후 친잠수례	71
[그림 54] 순정효황후의 친잠후 기념촬영	72
[그림 55] 제1회 양잠시범대회(박정희 전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	72
[그림 56] 제2회 양잠시범대회(박정희 전대통령 영부인)	72

[그림 57] 제3회 양잠시범대회(박정희 전대통령 영부인)	73
[그림 58] 전국양잠시범대회(전두환 전대통령 영부인 이순자여사)	73
표 : 성종기와 영조기 친잠례 의례구조 비교표	46
부록 : 친잠례 관련 연혁표	78

I. 서론

1. 연구목적

인간과 가장 가까운 환경이며 인간의 내면과 그 시대를 표현하는 복식과, 그에 따른 분장, 치장이 함께 복합되어 표현되어지는 패션쇼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 기원을 찾아보면 근대이후는 “1956년 가을에 노라노의 패션쇼가 반도호텔에서 열린” 기록을 찾을 수 있다.¹⁾

그러나 그 이전 우리나라 선조들의 역사속에서, 패션쇼 형식으로 간주될만한 행사를 살펴볼 때 궁중의례와 민간의례가 있었으며, 뚜렷한 기록이 없는 민간의례와 달리 매우 화려하고 대단히 체계적인 행사구조를 지닌 궁중의례가 있었다고 본다.

그중 패션(복식)과 연관 있는 것으로서 친잠의례(親蠶儀禮)가 있고, 친잠례가 현대 패션쇼의 기본요소 즉, 의상, 무대, 모델, 분장, 액세서리와 소품, 장소, 시간, 음악, 관객 모두가 어우러진 최초의 형식을 갖춘 패션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보다 확실한 기록자료와 복식관련 유물자료를 통해 현대 패션쇼의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춘 친잠례에 등장 사용되었던 복식과 화장 및 치장을 연구함으로써 전통 복식 및 화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친잠례란 왕비가 궁중에서 친히 누에치는 시범을 보임으로서 백성들에게 부지럽함과 잠업장려의 계기를 마련해주어 의료생산을 풍부히 하고, 나아가 국가의 강성함과 풍요로움의 기틀이 되도록 왕실에서 행하였던 행사이다.

누에를 쳐 비단을 짜는 양잠은 단군 시대부터 권장되어온 것으로 기자시대의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왕조 태조 때(1392) 종상지법을 제정, 더욱 양잠을 장려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 성종때(1493) 형식을 갖춘 친잠례를 거행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름다움과 예의를 숭양하였던 문화민족인 우리 겨레의 아름다움 중 으뜸이랄 수 있는 것이 궁중의

1) 이 재연 『패션이벤트 기획실무』, 모델라인, 1998, 1쪽.

왕비 의상이다, 왕비의 친잠복은 '일하는 여성'의상 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복식산업을 중시했음을 나타내 보인 증거라 보여진다. 친잠례는 왕비의 주도 하에 모든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행사에는 여자만이 참여하였고, 왕비 내외명부 모두가 국의(國依)를 입고 수식(首飾)을 가하였다. 왕비가 친잠례를 거행한 장소(무대), 행해졌던 제례악(음악), 참여했던 왕비와 내·외명부(모델), 분장, 지켜보던 왕과 문무백관(관객), 액세서리와 소품 등 이 모든 것이 현대 패션쇼의 기본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이루어진, 최초의 패션쇼로 확인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친잠례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의 부족함을 느껴 본 연구에서는 기록상 남아있는 완전한 격식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 형식과 화장법을 통하여 나타난 우리 선조의 전통적 얼과 뛰어난 미적 감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친잠례를 연구하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양잠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올라가야 되므로 조선조부터 고려 그리고 삼국시대 그리고 그 이전까지 소급해 양잠이 시작된 때부터 친잠례의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상고시대로 올라가 친잠례의 흔적을 보려 했지만 어떤 곳에도 그 증거가 될만한 것은 없고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견직물의 발달 과정을 서술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잠업 발달의 구체적 내용은 없고 오직 왕녀가 길쌈 장려를 위해 길쌈 대회에 나가 결과를 심사한 흔적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고려조에는 견직물의 수요가 늘어나자 양잠을 권장하고 밭주위엔 뽕나무를 심도록 지시한 일이 있다.

친잠에 관한 논의는 조선시대 태종(太宗) 11년에 처음 보이며 세조 2년엔 중전과 세자빈이 친히 누에치는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한 것이 보이지만 친잠례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의식절차를 갖춘 친잠례가 시작된 것은 성종(成宗)에 이르러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 보이고 연산군, 중종, 명종, 광해군, 숙종, 선조, 영조에 걸치면서 구체적으로 발전해온 것이 보인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는

친잠례가 치러지던 조선왕조 500년을 중심으로 친잠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친잠례의 의식절차를 고찰하여 친잠례에 참가한 핵심인물들의 화장법과 치장에 대해 고찰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과 친잠의례, 한국잠업사, 한국사, 역사비디오 및 박성실의 친잠례에 관한 유일한 논문 친잠례 및 친잠복에 관한 연구와 조선복식관련자료, 잠사관련자료, 화장문화사 등의 문헌자료, 조선시대 미인도를 비롯 친잠례의 복원행사 기록 등을 참고하였고 매년 초 사일(巳日) (1999년은 5월4일, 2000년은 5월18일) 이면 성북구에서 행하는 선잠제의 행사관계자, 잠업관계자, 친잠례 복원, 재연을 수 차례 가져온 조선 궁중의상 전문가 오 아름의 구술을 녹취하여 이 연구에 사용기로 하였다.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곳에는 사진이나 일러스트가 첨가 제시되었다. 각 자료들간의 연도와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을 우선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찰 정리기로 한다.

당시 모든 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중국에서 시작된 친잠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동기와 시대별로 변화된 친잠례의 전개과정을 조선조 전기와 중기, 후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하였고 조선조 500년 역사상 가장 격식을 갖추어 성대히 치러졌던 성종 대와 영조 대를 중심으로 친잠례의 논의과정, 준비과정, 참여인원, 의식절차, 포상기록 등의 내용과 친잠례 행사를 위해 앞서 치루어 졌던 잠업의 풍성을 지원하는 국가행사로 지냈던 제사인 선잠제의 구조와 의식절차를 포함하여 연구한다.

또한 궁중의례 중 최고의 여성인 왕비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친잠례 행사에 행해졌을 핵심인물들의 화장법과 치장 앞으로 친잠례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새롭게 시작되고있는 친잠례 복원 전통행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록으로 친잠례 및 선잠제와 관련된 기록을 연표로 첨가하였다.

II. 친잠례의 기원과 제도의 변천고찰

1. 친잠례의 기원과 의미

우리나라에 양잠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서는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에 교기민이예의전잠직작(敎基民以禮儀田蠶織作)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3천년전 고조선(古朝鮮)시대에 양잠(養蠶)을 권장²⁾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기자조선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고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삼한시대부터였다.

이에 대해 박성실은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³⁾

- ①馬韓 「馬韓人知田蠶作綿布」⁴⁾
- ②「基民土着種植知蠶桑作綿布」
- ③辰韓 「土地 - 美宜五饒知蠶桑作綿布」
- ④「地宜五穀俗饒蠶桑善作綿布」
- ⑤弁辰 「土地肥 美宜種五饒及 蠶桑作綿布」

등의 기록은 상대의 양잠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데 견의 생산은 의료(衣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잠업사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양잠에 관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 삼국시대(BC57 ~ AD 935 신라, 고구려, 백제)로 들어오면서, 신라시대 혁거세왕 17년, 파사왕 3년에 농상(農桑)을 권장하였으며, 고구려 시조 동명왕, 백제 온조왕 11년과 38년, 고려시대의 성종 6년, 현종 16년, 덕종 3년,

2) 대한잠사회, 『한국잠업사』, 1989, 대한잠사회, 695쪽.

3) 박성실, 「친잠례 및 친잠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9, 64쪽.

4) ① 마한인은 누에농사를 알아 면포를 지었다

② 그 백성은 땅에 붙어 씨를 뿌리고 심었는데 누에와 뽕나무를 알아 면포를 지었다.

③ 진한은 토지가 비옥하고 좋아 오곡에 마땅하고 누에와 뽕나무를 알아 견포를 지었다.

④ 땅은 오곡에 마땅하고 민속엔 누에와 뽕나무가 풍요로와 비단을 지었다.

⑤ 변진은 땅이 비옥하고 좋아 오곡과 벼를 심기에 마땅하고 누에와 뽕나무가 풍부하여 비단을 지었다.

고종 30년, 충렬왕 3년에 농잠(農蠶)을 권하고 식상(植桑)을 적극 장려하였다.⁵⁾

특히, 199년 백제 초고왕때 양잠과 직조방법을 일본에 전파하기도 하였는데, 일본의 양잠은 이때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맥이 끊어진 친잠행사가 현재 까지 황태자비의 주도 아래 매년 펼쳐지고 있다.

조선시대(1392년 이후)에는 약 500년 간 문존무비(文尊武卑)의 기간이며 또한 사대주의 사상이 극도로 팽배한 시대였으므로 “중국의 화려한 견직물 사용에 자극 받아 국내 생산도 장려하였고 때로는 다량의 견포(絹布)를 수입하였다.”⁶⁾

조선왕조는 명주길쌈을 정부차원으로 크게 권장하였다. 이는 농업과 상업을 중시하게 되고 특별히 상(桑)중에서 양잠을 경제의 근본중 하나라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조 초기 역대 왕들은 모두 양잠에 관심을 두고 장려정책을 폈다.

친경(親耕)과 친잠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의식으로 조상 숭배 정신과 권농의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는 통치자의 중요한 행사이다. 이를 옛 문헌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기(禮記)』 제통(祭統)에 “천자는 남교(南郊)에서 친경을 하여 제사 음식 마련에 이바지하고, 왕후는 북교(北郊)에서 친잠을 하여 예복 마련에 이바지하며, 제후는 동교(東郊)에서 친경하여 역시 제사 음식 마련에 이바지하고, 부인은 북교에 친잠하여 예복 마련에 이바지한다.”는 기록⁷⁾이 있고 『예기』 월령(月令)에는 “누에를 친 후 후비가 누에고치를 바친다”는 기록이 있고 『주례(周禮)』에는 “왕후가 봄에 곡식의 종자를 바친다”는 기록이 있다.⁸⁾

친경과 친잠의 의식은, 행사 전에 농사를 처음 가르친 고대 신농씨(神農氏)와 후직(后稷)을 선농단(先農壇)에서 제사하는 것과, 누에치는 법을 처음 전수한 중국 황제(皇帝의 비 서릉씨(西陵氏)를 선잠단(先蠶壇)에서 제사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는데, 이 역시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의식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그대로 지켜졌으며 조선조 역대 왕들의 반교문이나 전교를 통해 볼 때, 친경과 친잠에 역점을 둔 것은 조상 숭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백성들에게 민생의 기초인 식량과 의복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확

5) 대한잠사회, 앞의 책, 1989, 690쪽.

6) 대한잠사회, 앞의 책, 695쪽.

7) 예기, 제통 참조

8) 주례, 지관·사도 참조

인할 수 있다.⁹⁾ 친잠례는 왕과 왕비가 직접 행사를 치름으로써 온 백성의 귀감이 되고 격려하는 의식으로서 거행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2. 조선시대 친잠례와 선잠제의 제도화 변천 고찰

친잠례는 각 시대별로 그 행사의 규모나 진행방법, 의미와 비중 등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여건, 기후조건 등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 성종 이전까지는 주로 선잠제 만 지내기도 하였다.

선잠제는 양잠의 창시자로 알려진 중국 상고의 원비 서릉(西陵)씨의 중국 옛 제도를 본받아 고려 초에 매년 늦은 봄 길한 사일(巳日)에 잠신인 서릉씨 신위를 모시고 최초로 지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농본 민생정책이 보다 강화되어 정종 2년(1400년) 3월에 처음 선잠제를 지냈으며, 태종 13년(1413년) 4월에는 제사제도에서 선잠은 중사로 지낼 것을 확정하였다.

성종2년(1471년) 성북동에 선잠단지를 다시 축조하였고 성현의 “용제총화” 10권에 선잠제는 3월에 풍악을 써서 제사를 지낸다고 되어 있어 선잠제 거행 시 일무(佾舞)와 제례악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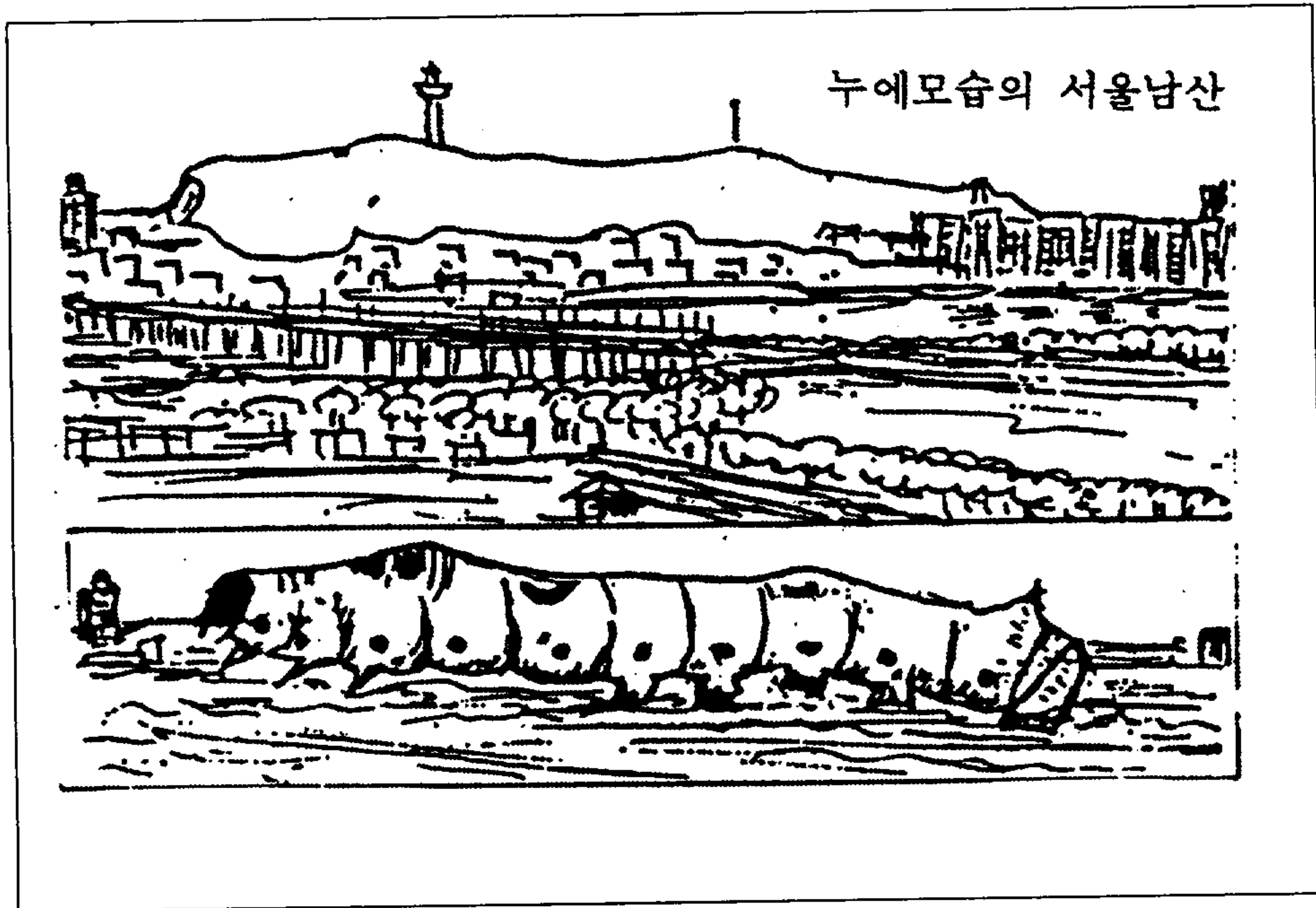
선잠제는 “대한제국 말인 순종 2년(1908년) 7월 선잠단 신위와 함께 사직단(社稷壇)으로 옮겨 배향후 중단되었다.”¹⁰⁾ 친잠례의 변천 과정을 조선조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친잠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기

조선조 개국 초부터 양잠을 제도화하기 시작하였지만 친잠례까지 거행하기에는 준비과정이 너무나 방대하고 시설부족, 경제적 이유 등으로 많은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자주 행해지지는 못하였다.

9) 박소동역, 『국역 친경·친잠의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9, 2쪽.

10) 성북구청 선잠제, 성북구청, 1997, 7쪽.



〈그림 1〉 누에 모습의 서울 남산

다만 조선 태조(太祖) 원년인 1392년에 경제육전(經濟育展)을 편찬 「종상지법(種像之法)」을 제정하여 누에치기를 적극 장려하였다.¹¹⁾ 태조(太祖)가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길 때 조선건국에 힘쓴 무학대사(無學大師)가 누에로 보이는 남산(南山)에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면 한양발전은 물론 나라가 태평성세를 누릴 것이라고 하였다는 말이 전하여 지고 있다.

서울 남산에는 아직도 잠두봉이라는 명칭이 남아있다.¹²⁾

태조 재위년간(1392-1398)에는 누에치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2대 정종이 등극하면서 정종 2년 선잠단을 설치하고 잠신인 황제원비 서릉씨에 제향 하였다. 기록상 조선시대 최초의 선잠제가 시작된 것이다.

제3대 태종조(1400~1418)에 이르러 태종 11년 후비 주관으로 친잠례 행사가

11) 대한잠사회, 앞의책, 811쪽.

12) 박재명, 『잠사 누에 모습의 남산』, 대한잠사협회, 1983, 68쪽

처음으로 궁중에서 행하여 졌다.

이는 왕비의 주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적 행사 의미에서 다소 의미가 축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태종 15년 한상덕으로 하여금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를 편찬케 하였으며, 16년에는 국립양잠소 격인 잠실도회(蠶室都會)를 설치하였다. 태종17년에는 잠실감독을 각지방 수령이 담당토록 하였고 태종18년 왕비 주관의 친잠례가 비로소 거행되었다.

이로서 태종대에는 친잠례가 조선왕조 들어 처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선잠제, 친잠례, 수견의의 등이 완전한 형식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다.¹³⁾

제 4대 세종조(1418 ~ 1450)에 이르러 서는

1429년에 『잠실도회(蠶室都會)』를 편찬하였다. 서울지역의 잠실은 세종대에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서울의 지명가운데 잠실, 잠원동 등 잠업과 관계가 깊은 곳이 남아 있다.¹⁴⁾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양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측면에서 선잠단 쌓는 법, 금기사항, 길일, 향악연주 등 선잠제 절차를 세밀히 준비하였으나 선잠제, 친잠례 모두 지내지는 못하였다.

제 5대 문종조(1450 ~ 1452)에 이르러 서는

문종 원년(1450)에, 잠실에 별좌를 배치하여 뽕나무 묘목재배를 권장하였고 밤섬에는 일반 작물의 재배를 금하고 오직 뽕나무 묘목만 심도록 조치하였다.

문종기에도 선잠제, 친잠례 모두를 지내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¹⁵⁾

문종조 이후 제 6대 단종시대(1452-1455) 제 7대 세조시대(1455-1468) 제 8대 예종시대(1468-1469)에 이르기까지 근 18여년 동안 많은 왕들이 양잠에 관심을 보였으나 정세불안, 경제난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하여 한차례도 지내지 못한 것으로 기록상에 나타나 있다.

13) 대한잠사회, 앞의 책, 811쪽.

14) 박성실, 앞의 책, 66쪽.

15) 대한잠사회, 앞의 책, 813~814쪽.

제 9대 성종조(1469 ~ 1494)에 이르러 서는

비로소 친경례와 선잠제, 친잠례가 함께 거행되었다. 그러나 성종8년(1477) 3월과 성종12년(1481) 3월에는 친잠례만 거행하였고, 성종 24년에 친경과 친잠이 모두 함께 성대히 거행되었다. 「성종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살펴보면 성종 8년의 친잠례 이후 4년이 지난 뒤 왕비 윤씨를 새로 맞으면서 예를 갖추어 친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예조에서 고제를 살펴 보고토록 지시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예조에서는 고전을 참고했는데 내용은 성종 8년의 내용과 거의 같다.

그리고 예조의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윤허가 있었다.¹⁶⁾ 우리나라의 절후는 중국과 달라서 3월 초 7일이 길일이나 뽕잎이 아직 다 피지 않았고 또 누에도 깨이지 않아 절후를 중순의 길사(吉事)로 고쳐 선택하였다.¹⁷⁾

현재 『한국 잠업사』 등의 기록에는 친잠례 거행 실적에 성종 12년의 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3월중 실제 친잠례를 행한 기록은 실록에는 나와 있지 않고 있다. 성종 24년 3월 21일에 행해진 친잠례의 기록이 매우 간단한 것으로 보아 전례를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중기

조선 중기인 제10대 연산군시대(1494~1506)에 접어들면서 왕들의 실정과 정세불안, 정권장악의 음모, 병환, 우천 등의 일로 인하여 친잠례는 거행되었지만 국가적으로 치루어진 대대적인 행사는 아니었다.

연산군 7년에는 김안국의 『잠서언해』가 간행되었다.¹⁸⁾ 연산 9년에는 예조가 사직과 선농에게 제사 지낼 것을 청하였으나 전교하기를 “선농제는 선잠제와 함께 거행해야 하는데 중궁이 복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거행할 수 없으며 나의 몸이 편치 못하고 바람이 찬데 목욕재계로 인하여 큰 병에 걸릴까 두려우므로

16) 박성실, 앞의 책, 74쪽.

17) 성종실록 125권 12. 1. 8(계사)

18) 대한잠사회, 앞의 책, 816쪽.

낮기를 기다려 거행해야 한다.”¹⁹⁾ 하였기에 지연되어 연산군 10년 (1504) 3월에 비로소 왕비의 친잠례가 행해졌다.

제11대 중종시대 (1506~1544) 에는

중종 8년과 중종 24년에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중종 8년에는 3월 12일로 택정 하였으나 빙일 관계로 3월 21일로 물려 행하였고, 중종 24년에는 3월 19일 행사 날 우천과 대비전의 감기로 인해 3월 22일로 물려 시행하였으며 대비의 환우로 악(樂)은 연주치 않도록 하였다.”²⁰⁾

“행사 후 왕비가 종재 1품 이상과 당상, 친잠을 담당한 관원들에게 인정전 뜰에서 술과 음악을 베풀었다”²¹⁾고 했다.



〈그림 2〉 어친잠실(御親蠶室)

19) 국역조선왕조실록 제 2집, 1995, 1997, (원전) 13집 537년

20) 박성실, 앞의 책 74-75쪽.

21) 중종실록 65권, 24년 3월27일

중종 27년 (1532), 창덕궁에 어친 잠실을 건립하였고 현재도 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제12대 인종(1544)조 에는 친잠례에 관한 기록은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는다. 재위기간이 짧은데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13대 명종조(1545~1567)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잠업사 연표』에 명종 8년과 12년 친잠례를 거행 할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명종실록에 의하면 “명종 8년 2월과 3월에 지진 등의 잇따른 재변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친경대례만 행하고 친잠은 뒤에 거행기로 논의하였다”²²⁾고 나와 있다.

명종 12년 (1557) 8월에는 진풍정을 거행하였으나 친잠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²³⁾

제14대 선조조(1567~1608)는 재위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 5년 3월 1일에 중전이 친잠하였다는 기록만 간략히 나와있을 뿐이다.²⁴⁾

제15대 광해군대(1608~1623)에는

광해 2년에 친경, 친잠등 각 전례에 대해 상고토록 하였고,²⁵⁾ 광해4년부터 계속 친잠 시기를 상고하고, 광해 7년엔 친잠후 주연 베풀 때 학무를 시행할 것을 전교 하였다.²⁶⁾ 광해 8년에는 예조와 왕비의 친잠때 옷 색깔을 의논하였다.²⁷⁾ 광해9년에는 친경 친잠을 왕의 환우가 쾌차하지 않은 고로 물려 시행토록 하였으며 선농과 선잠은 행하도록 하였고, 광해 10년에도 친잠 날짜를 물린 기록이 보인다. 이처럼 광해기는 여러 차례 사고로 인하여 거의 성사되다가 중지되곤 하였던 것이다²⁸⁾

광해 11년에는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친잠 중지를 요구하는 유생들의 상소가 잇달았다. 광해 12년 친잠례 준비 과정 중 내전의 친잠례를 그림으로 그려보낼 것을 명령하였으며 연습시 불참한 이들을 나무라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해 12년 4월 20일엔 왕비가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친잠례를 행하였다.²⁹⁾

22) 명종실록014, 8/2/23~8/3/27

23) 명종실록 023, 12/8/14(갑오)

24) 국역조선왕조실록, 앞의 책 제2집(원전) 25집, 429쪽.

25) 국역조선왕조실록 제2집, 앞의 책(원전) 31집, 496쪽.

26) 국역조선왕조실록, 앞의 책 32집, 426쪽.

27) 국역조선왕조실록, 앞의책 32집, 529쪽.

28) 국역조선왕조실록 제2집, 1(원전) 33집, 207쪽.

친잠례 후 교서를 반포하여 사형이하 사면령을 내렸으며 광해 12년 11월에 황제 부음으로 연기된 궐정잔치를 거행토록 하였다.³⁰⁾

제16대 인조(1623~1649)에는 27년의 긴 재위기간에도 불구하고 친잠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제17대 효종(1649~1659)에는 효종6년 신숙이 『농가집성』을 편찬하였고, 효종 10년 농상에 힘쓸 것을 유시하였으나 친잠례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제18대 헌종(1659 - 1674)에도 마찬가지로 친잠례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 중기에는 연산군, 중종, 선조, 광해군 때만 친잠례가 행해졌을 뿐이며 이 또한 거국적 행사라기보다는 규모가 축소된 행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 후기

조선말기19대 숙종 ~ 27대 순종까지 들어서면 친잠례의 기록이 엿보인다.

『한국잡업사』에 숙종(1674~1720) 재위2년, 3년에 친잠례를 행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이조왕조실록』을 참고로 찾아본 결과 19대 숙종 기에는 친경과 친잠례의 거행 시도는 많았으나, 실제 거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3년 2월에 친경 행사를 진행하려는 차에 큰비가 내려 중지하였고, 숙종 6년 오정창과 허목등이 정권을 장악하고 왕실을 위태롭게 하려고 꾀하여 친잠과 친경을 건청하기도 하였다.

숙종 23년 12월 도승지 이현석이 친경, 친잠을 시행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숙종 재위기간 중 초기에는 친경을 거행하려다 재이 때문에 중지되었고, 그 이후 모반을 피한 옥사로 사람들이 건의 조차 힘들어 하였다.³¹⁾

29) 국역조선왕조실록, 앞의 책 33집, 311쪽.

30) 국역조선왕조실록, 앞의책 33집, 352쪽.

제20대 경종조(1720 ~ 1724)에는 친잠례기록이 나와있지 않다.

제21대 영조(1724~1776)조에 이르러 서야 영조 43년에 조선 500년사중 가장 거국적인 행사로 친잠례가 준비되었다는 기록이 보이며, 모든 의식절차는 성종기, 중종기, 선조 조의 삼조 실록을 고찰하여 행해 졌다³²⁾고 한다.

이는 당시 300년만에 재현되는 행사였으며, 영조43년의 친경과 친잠은 역대 왕들이 하지 않았던 장종과 수건의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친경과 친잠이 모범을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끝까지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영조는 당시 74세로 경희궁에 거처하면서 동적 전에 나아가 선농제를 지내고 친경을 하였다. 이때는 5년 전에 죽은 사도세자 대신, 그의 아들이자 훗날의 정조인 16세 된 왕세손과 함께 친경을 하면서 감회어린 생각을 피력한다. 그리고 한달 뒤인 3월 10일에 9년 전에 재혼한 정순 왕후도 친잠을 하도록 하여 왕과 왕후가 조상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여 모범을 보이고 권장하는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특히 역대 왕들이 친잠의 장소로 이용하였던 창덕궁이 아닌 경복궁 강녕전의 옛 터에다 제단과 친잠단을 쌓고, 왕비가 직접 '작헌례'와 '채상례'를 거행하도록 하고 이 곳에서 하례를 받는 '조현례'까지 거행함으로써 경복궁이 지니고 있는 왕조 창업의 상징성까지 기리고자 하였다.³³⁾

또한 영조 43년 『친잠의궤』와 『장종수잠의궤』를 작성하였다. 영조 46년 1월 9일 경복궁의 친잠단이 있는 곳에 '정해친잠'이란 4글자를 직접 써서 돌에 새기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³⁴⁾

이 기념비는 현재는 남아 있지 않으나 영조가 얼마나 친잠례를 중시 여겼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제22대 정조(1776 ~ 1800)에 이르러 서는

정조 22년 11월 30일 신하 27명이 친경과 친잠례 거행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31)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 3집, (원전)38집 319쪽.

32) 박성실, 앞의책 75쪽.

33) 박소동역, 앞의 책, 24쪽.

34) 영조실록 114권 46년 1우러 9일 (정해)

올렸으나, “정사와 교화가 열성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교지를 내렸고 친잠례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³⁵⁾

그후 23대 순조(1801 ~ 1834) , 24대 헌종(1834 - 1849), 25대 철종(1849 - 1863), 26대 고종(1863 - 1907)에 이르는 동안에는 친잠례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순조, 헌종, 철종 때에 세도정치로 인하여 정치가 극도로 문란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도가들의 가렴주구가 극심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은 피해는 농민들이 겹머지게 되었다. 혼란의 시기였기에 친잠례 를 치를 만한 국가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27대 마지막 순종조(1907 ~ 1910)에는

1909년 6월 21일 순종효 황후 어수견식이 거행되었고, 1910년 6월 25일에도 순정효 황후의 어수견식이 거행되었다. 이후에는 순정효 황후의 어수견예는 1924년, 1925년, 1929년, 1930년, 1933년, 1939년에 걸쳐 거행되었으나 1910년 이후 일제침략 시기를 제외한 순수 조선시대의 친잠례 행사와 친잠례의 약식화된 행사중 하나인 어수견예 는,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치러진 것까지만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는 영조기 이후 격식을 갖춘 친잠례 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약식화된 행사만 순종 기에 이루어졌을 뿐이다.

4) 조선시대이후의 친잠례 발전상

친잠례는 21대 영조기 이후 계속되는 정치혼란, 경제난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쇠퇴하였다.

1909년 순종 조에 친잠례를 약식화한 이수진예가 치러졌고 1910년 이후 일제 시대에는 약식화된 이수견예만 몇차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수견예 행사는 해방 전까지 창덕궁 어천잠실에서 행해 졌으며 근대이후 가장 최근기록으로는 잠업주산지에서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1972년 ~ 1974년 가평, 청원, 춘천에서,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가 1981년

35) 정조실록 50권 22년 11월 30일 (기축)

청원에서 친잠례와 비슷한 권잠행사를 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친잠례행사는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1999년 12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제1회 조선왕조 친잠례 재연행사로 복원되었다.

이후 2000년 10월 제2회 재연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2000년 12월에 한일 엑스포 교류 전에 초청되기도 하였다. 친잠례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거국적 행사로 치루어지기도하고 약식화된행사 또는 행사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이후 중단되었던 친잠례는 현재 전통문화에 대한 커다란 관심 속에서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3. 친잠례의 의례구조

여기서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비중 있는 거국적 행사로 격식을 갖추어 치러졌던 시기를 중심으로 친잠 구조를 비교 분석코자 한다. 역대 왕 중 친경, 친잠을 같이 거행한 왕은 성종과 영조이었기 때문에,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시기를 성종 기로 택하였고, 조선 후기는 영조기로 정한다. 조선중기는 친잠례가 거국적인 행사로 격식을 모두 갖춰 치러진 예가 미약하므로 본 조선시대를 전기 성종기(1469~1494)와 후기 영조기(1724~1776)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1) 조선 전기의 친잠례

조선 전기 시대에서 초기 태종 18년에 왕비 주관의 친잠례 기록이 보이나 이는 약식화된 행사였으며 이조 전기 많은 역대 왕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친경, 친잠의 행사를 함께 거행하지는 못하였다.

성종기에 이르러 비로소 격식을 갖춘 친잠례가 거행되었다. 성종은 친잠단을 창덕궁 후원에 쌓고 성종 8년(1477) 3월 14일에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태종 14년(1414) 6월에 선잠단의 규모를 정하는 기록이 보이고 정종 2년(1400)에 선잠단에 처음 제사한 기록이 있지만 『이조실록』에서

는 왕비가 직접 격식을 갖추어 친잠을 한 것은 성종 8년으로 기록에 처음 보인다. 이에 잠사 관련 책자 중에는 최초의 친잠례 기록을 성종 8년으로 기록해 놓은 것도 있다.

성종 기에는 친잠의 절목과 의제 등을 중국 여러 나라의 특징을 참고하여 시대에 맞게 조절하여 결정하였다.

역대 왕 중 친경과 친잠을 같이 거행한 최초의 왕은 성종이라 할 수 있다.

(1) 논의과정과 준비절차

성종 7년 8월 22일 승정원에 전교 하여 후비의 친잠례 에 대한 구례를 상고토록 하였으며,³⁶⁾ 우부승지 손순효가 친잠의례를 후원에서 하기를 청해 정승에게 의논하게 하였다.³⁷⁾

성종 7년 8월 30일 예조에 전지하여 친잠의제를 조사하도록 하였고,³⁸⁾ 동년 9월 25일 예조에서는 친잠례 에 필요한 절목을 고전을 참조하여 건의하고 윤허를 받았다. 그 내용은 살펴보면,

첫째, 『두씨通典』의 황후 친잠의에는 출궁, 환궁 시와 단에 오르내릴 때 악을 연주하며 『송사(宋史)』에는 악이 없고 오례의(五禮儀)에는 왕비의 수하의(受賀義)와 회명부의(會命婦義)에 있어 오르고 내릴 때 악이 있으니 금번 친잠의에는 왕비 출궁시와 환궁 시에 악을 연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고제(古制) 황후의 친잠에는 국의(鞠衣)를 입었다. 『禮記』 월령에 '국의를 선제에게 바친다'하였고 주(注)에 이르기를 '옷의 빛깔이 국화의 황색과 같으며 친상(親桑)의 의복(衣服)은 빛깔이 국록과 같은데 뽕잎(桑葉)이 처음 돋는 빛깔을 상징한 것이고 선대의 목덕지군(木德之君)이 이 옷을 신좌(神座)에게 드리고, 잠사(蠶事)를 빌었다고 하였으니 국의는 호아색을 취한 것이 아니라 뽕의 빛깔을 상징한 것이다. 두씨통전에 황후의 의복가운데 국의가 네 번째이고 명부

36) 국역조선왕조실록, 앞의 책, 제1집(원전) 9집, 377쪽.

37) 국역조선왕조실록, 앞의책, 제1집(원전) 9집 379쪽.

38) 국역조선왕조실록 9집, 379쪽.

의 의복가운데 국의가 첫 번째 있으니, 오직 황후의 옷만이 아닌 것이 명백하니 본조(本朝)친잠에 국의를 입고 수식(首飾)을 가(加)하도록 정하였다.

셋째, 뽕잎을 받는 그릇은 송 나라 제도 상(箱)이라 하였고 나머지는 광주리를 칭하였는데 빛깔은 말하지 않았다. 금번에는 고제에 따라 네모난 광주리를 만들고 국의에 뜻을 상징하여 황색으로 만들기로 정하였다고 되어있다.

넷째, 채상(採桑)에 필요한 금구(金鉤, 쇠로된 갈고리) 제작을 지금 상고할 수 없으니 현재 사용하는 모양으로 하되 어구(御鉤, 왕비가 사용하는 갈고리)는 두 석(豆錫, 놋쇠)으로 하고 내외명부의 금구(金鉤)는 정철(正鐵)을 써서 뽕잎을 올리고 목병(木柄, 나무자루)의 길이는 1척(尺) 2촌(寸)으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의주(義住)에 '왕비의 악차(壘次)는 단유(壇遺)의 동문 내에 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내명부의 자리는 왕비 악차 뒤에 남향으로 설치하며 외명부(外命婦)의 자리는 악차 남쪽에 설치하되 유(遺)밖에 서쪽에 동향으로 한다' 하였으나 지금은 단유에 지형이 좁아 악차를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악차(幄次) 밖에 장유(長襦)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연을 메는 내관의 관복은 흑의와 사모, 품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³⁹⁾

일곱째, 의장봉지(義杖奉持)와 각 차비(差備)는 내시부로서 부족하여 여기(女妓)와 의녀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2) 거행장소

친잠례를 거행하는 장소는 창덕궁 후원으로 정하였고, 창덕궁 후원에 친잠단을 쌓았다.

이는 선잠단이 북쪽교외에 있고, 장소가 협소하여 왕비가 직접 뽕잎을 따는 채상단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역대 왕들이 거행한 몇 번의 친잠은 종종이 경복궁에서 거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때 창덕궁에 쌓은 친잠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39) 박성실, 앞의 책, 70쪽.

40) 박소동역, 앞의 책, 1999, 9쪽.

즉, 경복궁과 창덕궁이 친잠례 의 거행장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3) 거행시기

거행시기는 『예기(禮記)』 제의 편을 참고하였다. 황후가 대昕(大昕)의 아침, 즉 3월 초하루의 아침에 길일을 가려 잠실에 들어가 누에를 친다는 기록이 있고 『두씨통전』에는 황후가 3월의 길사(뽕날)에 선장에게 제사지낸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계절상 3월달 상사(上巳)에는 뽕잎이 피지 않고 누에새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3월안에 뽕잎이 나기 시작할 때를 기다려 제를 행하였다⁴¹⁾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참여인원

친잠(親蠶)하는 데에 집사(執事)는, 채상(採桑)에 1품(品) 내명부(內命婦)가 둘이고, 2품(品) 내명부가 하나이며, 3품 내명부가 하나이다. 1품 외명부(外命婦)가 둘이고, 2품 외명부가 하나이며, 3품 외명부가 하나이다. 종채상(從採桑)은 외명부가 1품에서 3품에 이르고, 상의(尙儀)가 하나, 상궁(尙宮)이 하나, 상기(尙記)가 하나, 상전(尙傳)이 하나, 상공(尙功)이 하나, 전제(典製)가 하나, 전빈(典賓)이 넷이다.⁴²⁾는 기록이 나와 있다. 잠모는 별잠실의 잠모중 길(吉)한자를 선택하였고, 의장봉지와 각 차지는 내시부로 부족하여 여기(女妓)와 의녀(醫女)로써 충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친잠례에 참여하는 중심인물은 40여명에 여기 딸린 보조자를 합하면 거의 백여명에 다다른 인물들이 친잠례를 치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1) 국역조선왕조실록 제 1집 (원전) 9집 382쪽.

42)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 1집, (원전) 9집 382쪽.

(5) 절차 및 순서

① 선잠제 의 경우

친잠례 첫 번 행사인 선잠제는 그해에 누에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로 서 성종 2년(1471년)에 성북동에 선잠단을 다시 축조하였다.

친잠일 전이나, 당일에 친잠례 시간 전에 반드시 행하였다. 성종 12년 1월 송나라 제도에 따라 계춘(季春)의 길사(吉巳)에 관리를 보내어 선잠에 제향하였으며 국조오례의 길례(吉禮)에는 선잠제에 진설(陳設), 행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헌관들이 대행하고 있다.⁴³⁾

전축관(典祝官)이 신좌를 설치하고 왕비 혜빈, 왕제손빈 명부의 각위를 준비한다. 축판, 향로, 초, 제기 찬구를 설치하면 왕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 나아가고 상의가 작헌례를 계청한다. 왕비가 예복가수식(禮服加首飾)하고 규(圭)를 꿇고 3번 향을 올리고 헌작한다. 축문 읽기를 마치면 왕비가 복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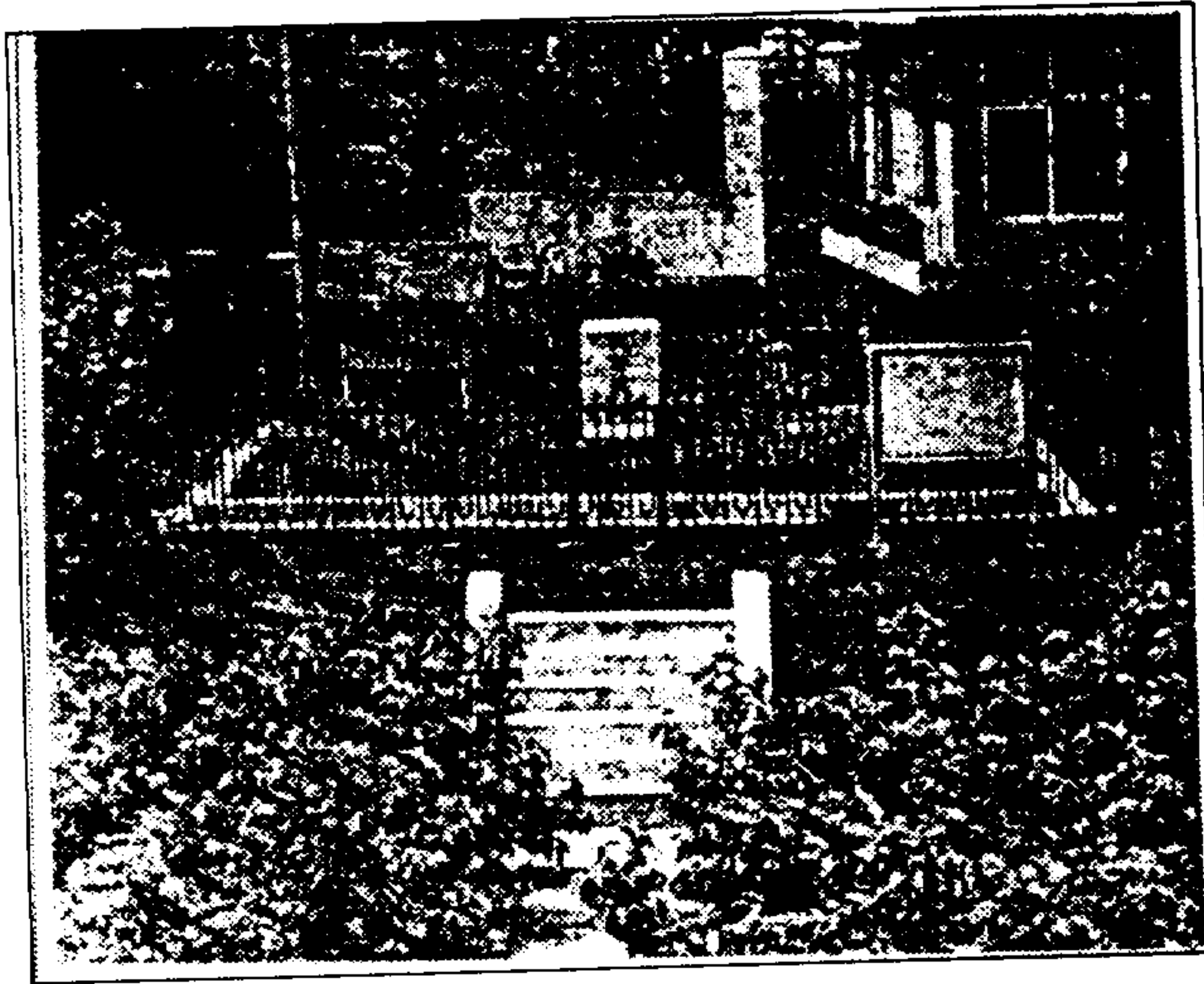
혜빈이하의 왕비를 따라서 순서대로 예를 행한다. 상의(尙儀)가 축문을 아뢰면 왕비는 규(圭)를 놓고 대차(大次)로 돌아간다. 집례(集禮)가 “망료(望僚)”라 하면 혜빈을 인도하여 나아가고 축판을 태우고 위판(位版)을 봉안해 둔다.

성종 기에는 선잠단은 북교에 있고 채상단은 후원에 있으므로 왕비가 친히 제사지기 어렵기 때문에 송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관원을 보내어 대신 선잠에게 제사지내게 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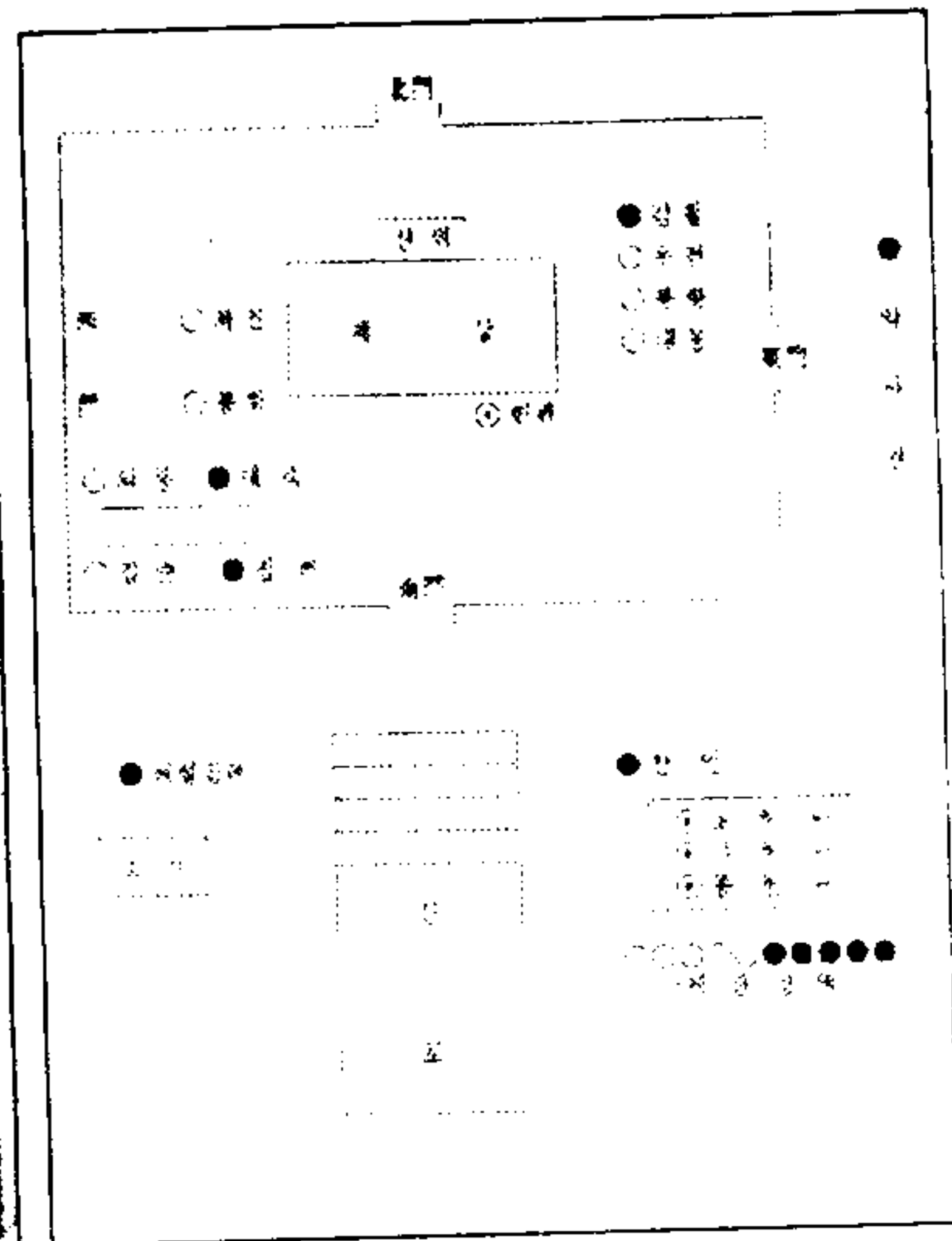
선잠제는 제례중 중사(中祀)에 속하였다⁴⁴⁾고 한다.

43) 서울특별시,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1995.

44) 성북구, 『선잠제』, 성북구청 선잠제 행사 팸플릿, 1997, 15쪽.



〈그림 3〉 선잠단지(사적 제8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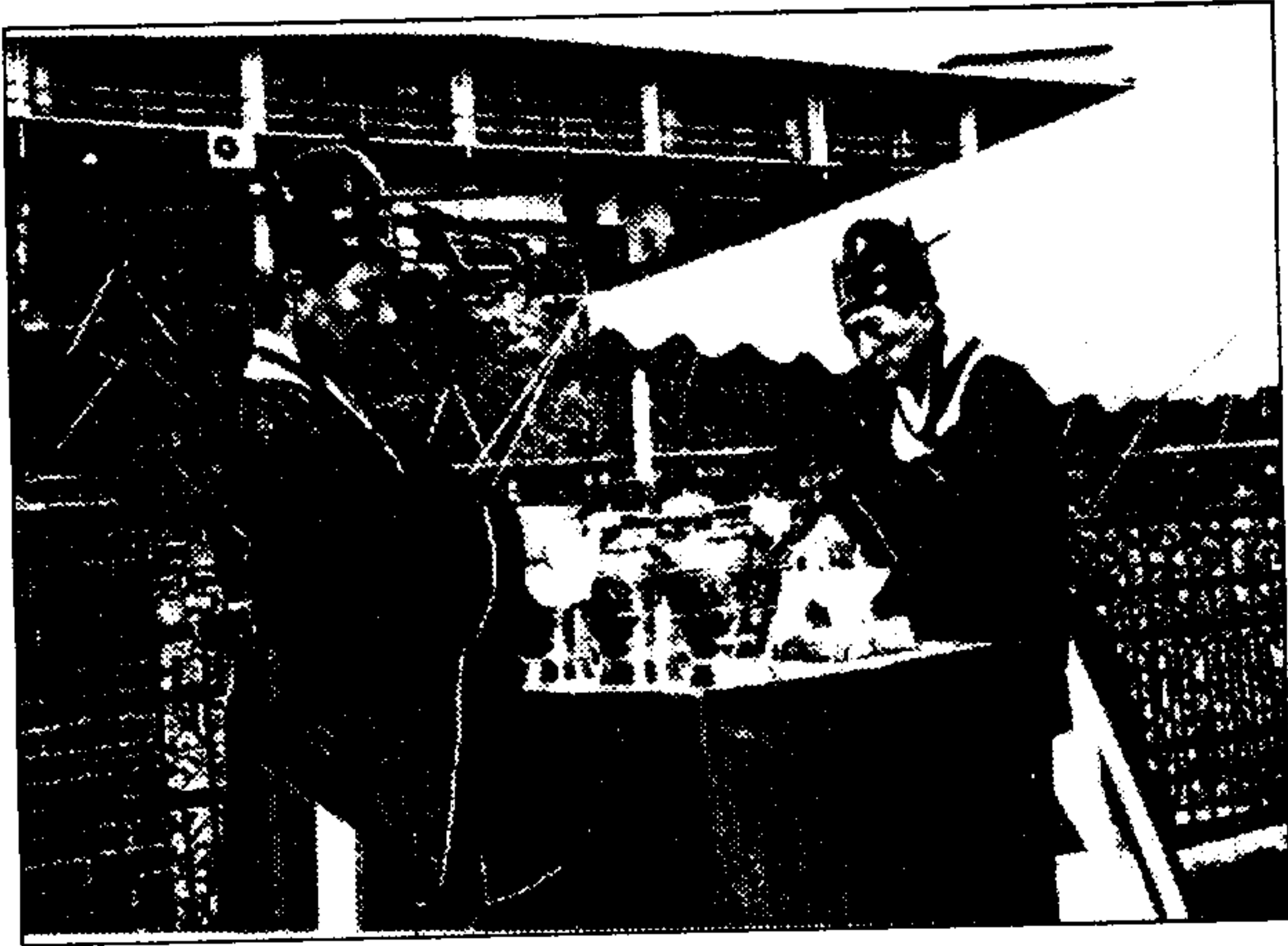
〈그림 4〉 선잠제향의식도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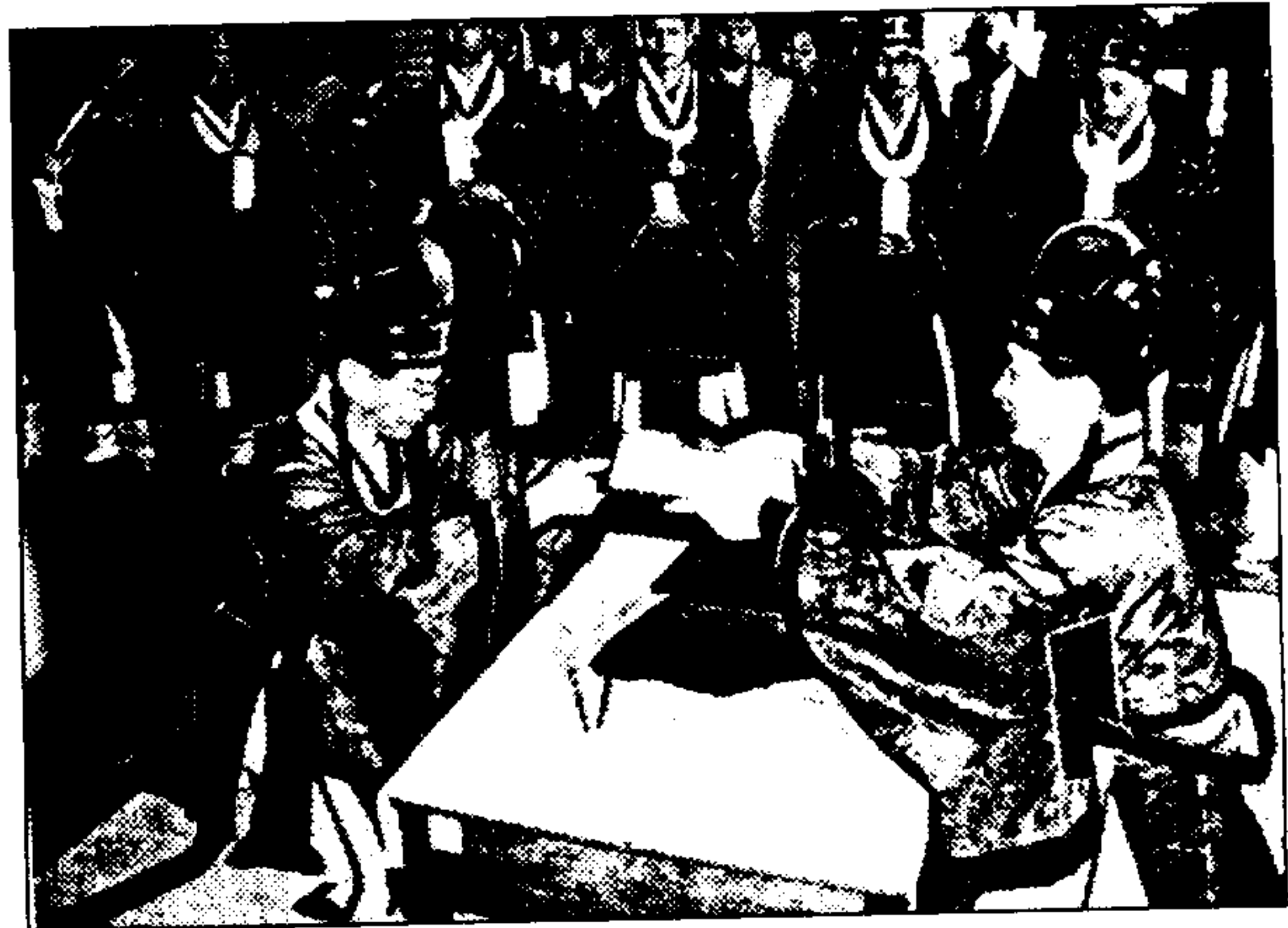
〈그림 5〉 제관이 축을 모시고 오는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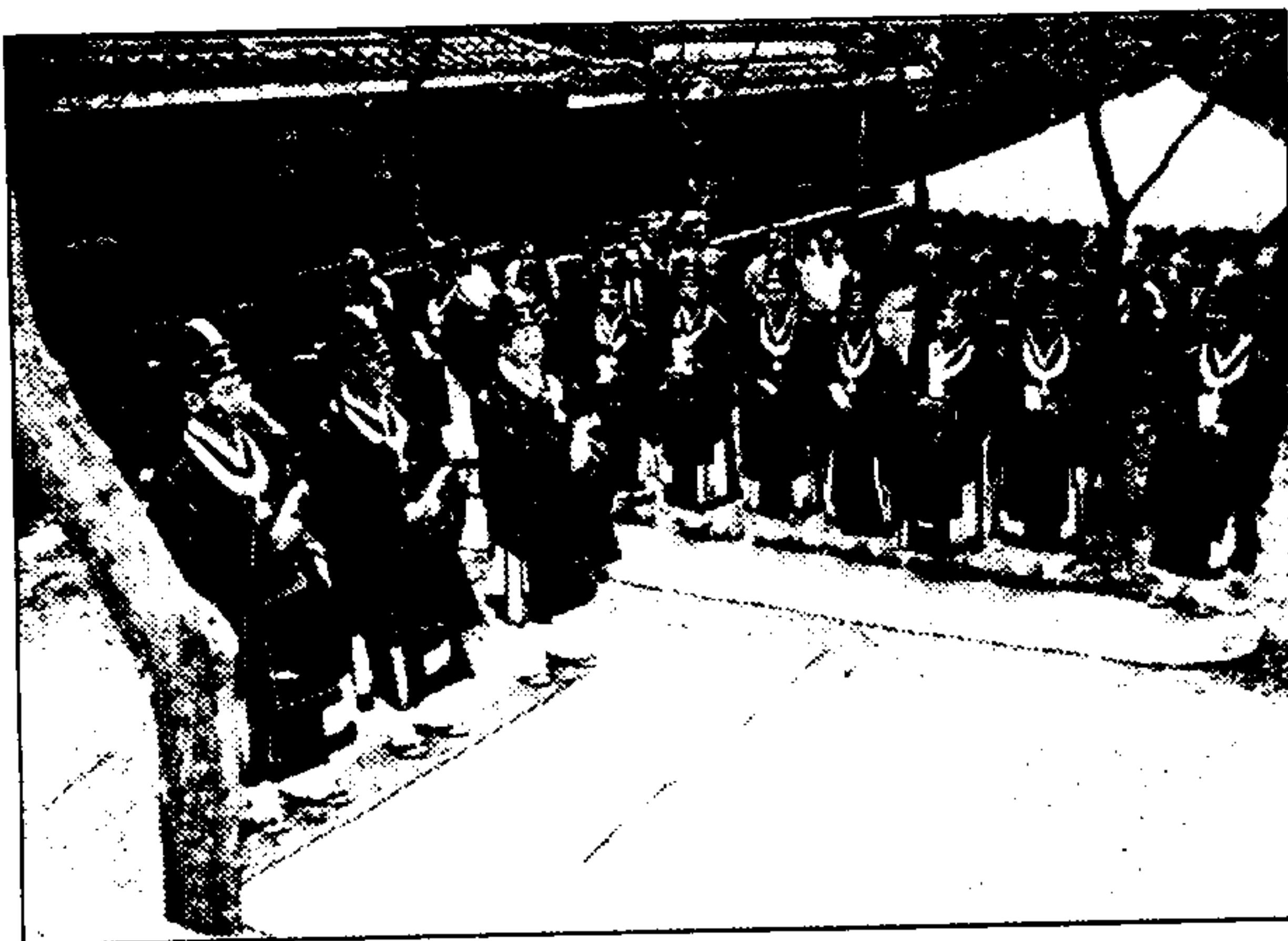
〈그림 6〉 제관이 제수를 진설하는 의식



〈그림 7〉 제관이 준회를 진설하는 의식



〈그림 8〉 선잠제 전향축례



〈그림 9〉 행례전 제관취위



〈그림 10〉 제례악



〈그림 11〉 선잠제 취타대 행렬



〈그림 12〉 선잠왕비의 선잠단지 행차



〈그림 13〉 선잠제향을 참관하는 선잠왕비



〈그림 14〉 당상관 정장



〈그림 15〉 면복 후면

그림 5-15 선잠제 재연행사 1998. 5

② 친잠례 의 경우

우승지 임사홍(任士洪) 이 예조 참판 이극돈(李克墩)과 더불어 친잠의 를 참정(參政)하였는데 이부분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행사였던 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의식을 살펴보면

“예조에서 계춘(季春)의 길사일(吉巳日)을 택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통섭(統攝)하여 각기 그 직(職)에 이바지하게 한다. 친잠일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유악(帷幄)을 채상단(採桑壇) 밖에 적당히 설치하되, 사면에 모두 문이 있게 하고, 왕비의 막차(幕次)를 단유의 동문 안의 길 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내명부의 막차를 왕비의 악차(幄次) 뒤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외명부의 막차(幕次)를 왕비의 악차 남쪽 단유 바깥 서쪽에 동향하여 설치한다. 지형의 형 따른다 친잠일 그날에, 상침(尙寢)이 왕비의 채상 욕위(採桑褥位)를 단상에 설치하되, 조금 동쪽으로 동향하여 설치하고, 내명부의 채상위(採桑位)를 단하(壇下)에 설치하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외명부(外命婦)의 채상위를 단하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자리(位)를 달리 하여 겹줄(重行)로 하고, 서쪽을 위[上]로 한다. 내·외 1품이 각각2인, 2, 3품이 각각 2인이다. 또 수종(隨從)하여 채상(採桑)할 내명부의 자리를 내명부의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수종하여 채상할 외명부의 자리를 외명부의 동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고 서쪽을 위로 하며, 왕비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을 자의 자리를 내명부의 서쪽에 설치하되, 조금 남쪽으로 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상공(尙功)은 구(鉤)를 잡고, 전제(典製)는 광(筐)을 잡는다. 내·외명부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을 자는 각각 그 뒤에 자리하게 한다. 여사(女史) 1인은 구(鉤)를 잡고, 1인은 광(筐)을 잡는다. 그리고 또 단상(壇上)에 왕비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을 자의 자리를 왕비의 채상 위 북쪽에 조금 동쪽으로 하여 설치하되, 남향하게 하여 서쪽을 위로하고, 여령(女伶)의 자리를 단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하여 북향하게 한다. 병조(兵曹)에서 의장(儀仗)을 공신문(供辰門) 밖에 진열하고, 사복시부정(司僕侍副正)이 연(輦)을 문밖에 베풀어 놓고, 여(輿)를 내전(內殿)의 문밖에 올린다. ‘그날’ 미명에 외명부로서 마땅히 채상 할 자는 각각 여시(女侍)로 하여금 갈고리와 광주리를 올리게 하여 가마에 싣고 먼저 친잠소(親蠶所)에 나아가 상전에게 주어 ‘상전이 이를’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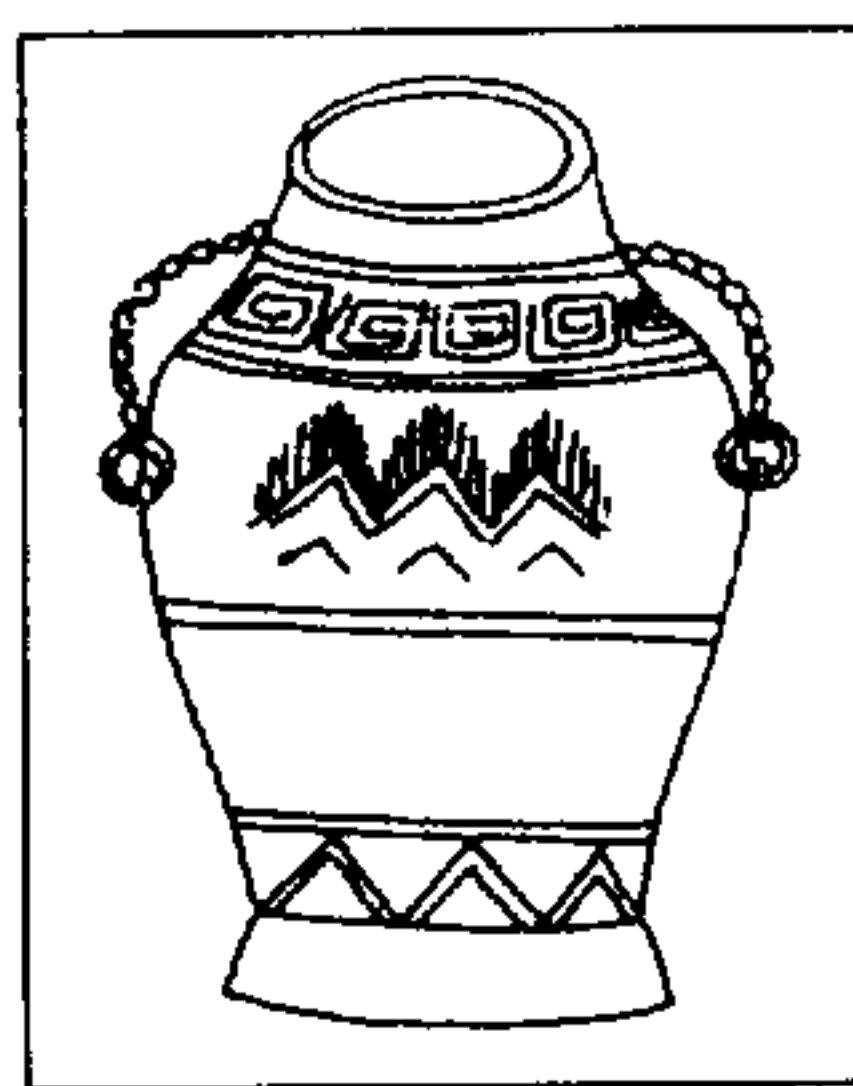
구자(執鉤者)·집광자(執筐者)에게 주도록 하고, 수종하여 채상할 외명부도 또한 먼저 1각(刻)전에 나아간다. 내명부는 각각 그 복색(服色)을 입고, 전빈(典賓)이 내명부를 인도하여 모두 전정(殿庭)에 나가 겹줄로 서향하되, 북쪽을 위로하고, 상의(尙儀)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한다.

상궁 이하가 각각 예복을 갖추며, 상기(尙記)가 보(寶)를 받들고 모두 내합(內閣)에 나가 대기하고, 상의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뢴다. 왕비가 국의를 입고 수식을 가하고 여(輿)를 타고 나오면, 산·선의 시위(侍衛)를 보통 때와 같이 하고 내명부가 수행하는데,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공신문 밖에 이르면 부복하고 꿇어앉아 '여(輿)에서 내려 연(輦)을 타라.'고 계청한다. 왕비가 여에서 내려 연을 타면, 집사자(執事者)가 갈고리와 광주리를 올려 연에 싣고, 행유(行帷)로써 가린다. 상의(尙儀)가 연 앞에 나가 부복하고 계청하기를, '어가(御駕)가 진발(進發)하라.'고 하여, 어가가 움직이면, 고취(鼓吹)가 진작(振作)하고 내명부가 가마를 타고 따르는데, 마땅히 채상(採桑)할 여시(女侍)가 갈고리와 광주리를 올려 가마에 싣고, 친잠소의 단 동문 밖에 이르면 상의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연에서 내려 악차로 들어가라.'고 계청한다. 왕비가 연에서 내리면,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악차로 들어가고, 의장은 문밖에서 멈추며, 근시자(近侍者)는 따라 들어가는데, 근시가 왕비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집구자와 집광자에게 준다. 내명부는 막차로 들어가고, 여시가 갈고리와 광주리를 상전에게 주어서 집구자와 집광자에게 준다. '친잠할' 시각이 되면, 전빈(典賓)이 내·외명부로서 마땅히 채상할 자와 수종 하여 채상할 자를 인도하여 모두 단하(壇下)의 자리로 나가고, 여러 집구자·집광자가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상의(尙儀)가 부복하고 '행례(行禮)하라.'고 계청하면, 왕비가 악차에서 나오고, 음악이 연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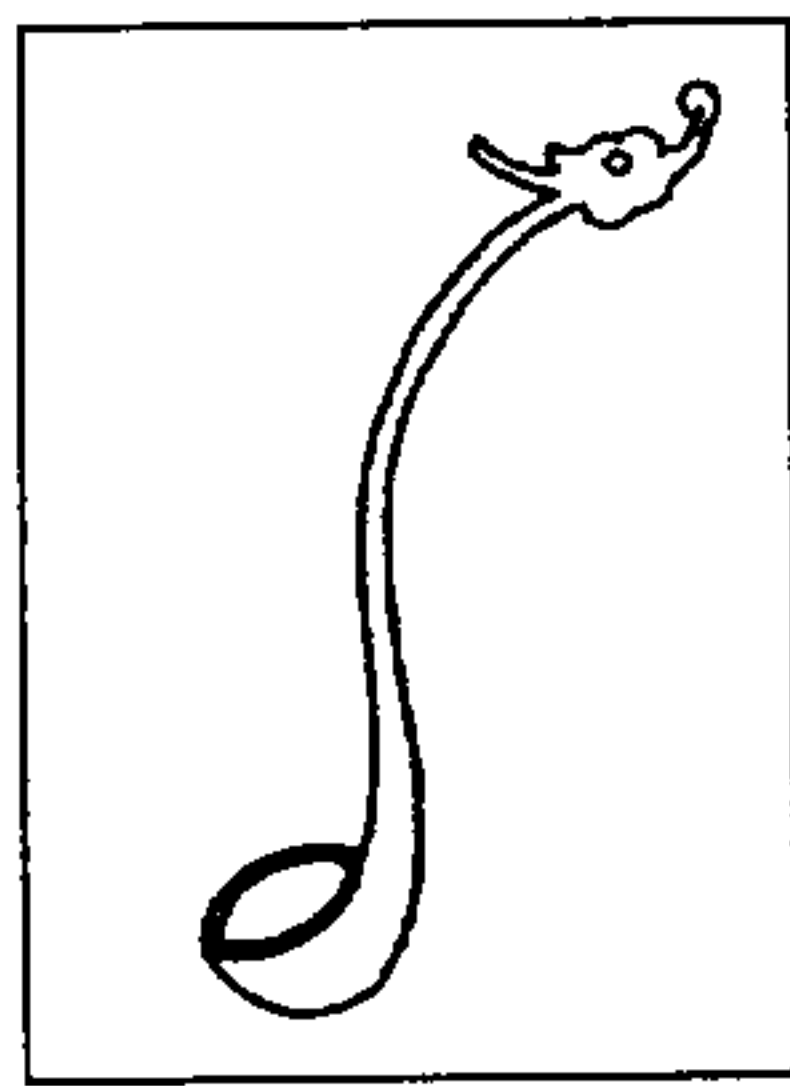
상궁(尙宮)이 '왕비를' 앞에서 인도하여 단(壇)에 나가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채상위(採桑位)에 나가 동향하여 서면, 음악이 그친다. 집구자·집광자가 북쪽 계단으로 올라서 자리로 나가고, 다음에 전빈(典賓)이 상궁(尙宮)·전제(典製)를 인도하여 채상위 앞에 나가 서향하여, 갈고리를 받들어 올린다. '그러면' 왕비가 갈고리를 받아 뽕을 채취하고, 전제가 광주리를 받들어 올려서 뽕을 받는데, 왕비는 뽕을 채취하기를 다섯 가지에서 그치고, 갈고리를 상궁에게 주면,

상공이 갈고리를 받고, 전제가 광주리를 받들고 함께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처음에 왕비가 빵을 채취하면, 여사(女史)가 각각 갈고리를 마땅히 채상할 내명부·외명부에게 주고, 왕비가 빵을 채취하기를 마치면, 전빈(典賓)이 내명부·외명부를 인도하여 차례로 빵을 채취하고, 집광자가 이를 받는데, 내·외명부 1품은 각각 일곱 가지를 채취하고, 2,3품은 각각 아홉 가지를 채취한다. '이를 마치면' 여사(女史)가 갈고리를 받아 집광자와 더불어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보고, 전빈이 각각 내명부·외명부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온다. 상의가 왕비 앞에 나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禮)가 끝났다.'고 아뢰면, 음악이 연주된다. 상공이 왕비를 인도하여 남쪽 계단으로 내려와 악차로 돌아온다. 처음에 왕비가 단을 내려오면, 전빈이 내명부를 인도하여 잠실로 나아가고, 처음에 마땅히 채상한 내명부 1원(員)이 먼저 잠실로 나아간다. 상공(尙功)이 집구자·집광자를 거느리고 차례로 따라 잠실에 이른다. 상공이 빵을 잠모(蠶母)에게 주고, 잠모가 빵을 받아 실처럼 썰어서 내명부에게 주어 누에에게 뿌려 한 박(薄)을 먹이고 나면 전빈이 내명부·외명부를 인도하여 각각 막차(幕次)로 돌아간다. 왕비의 환궁(還宮)은 올 때의 의식과 같다⁴⁵⁾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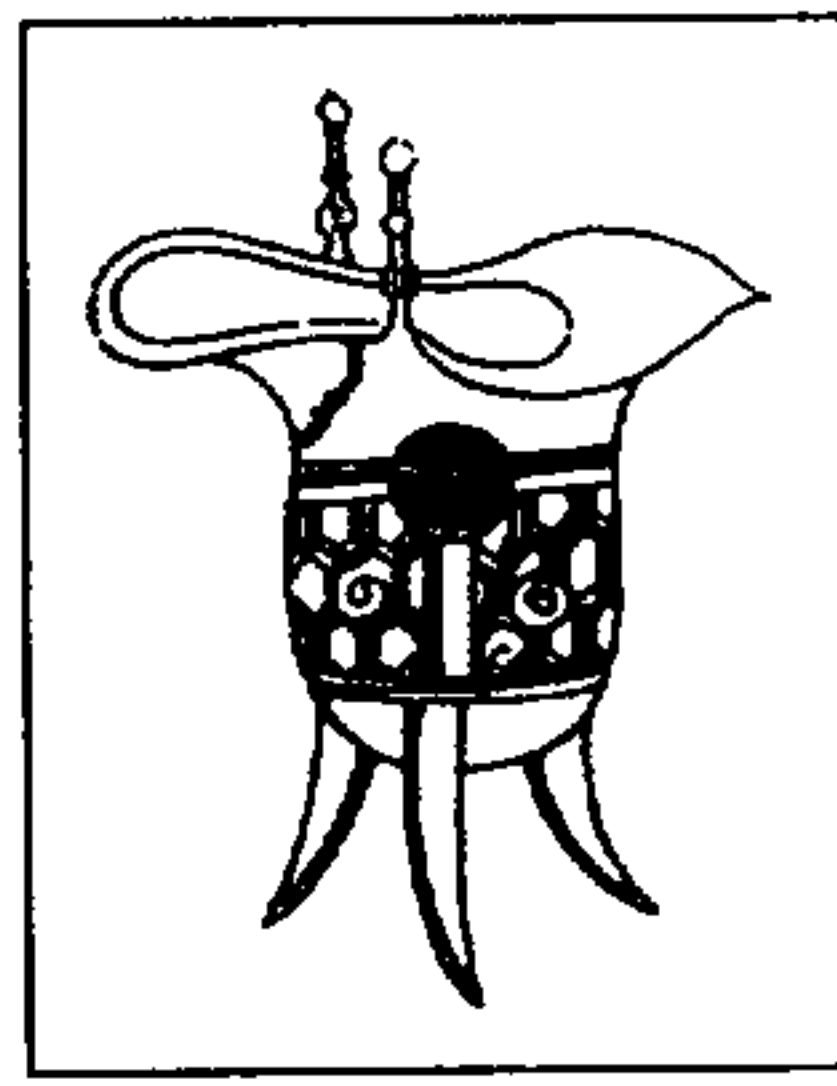
성종조의 친잠례는 최근 KBS에 방영된 사극 왕과비에서 중궁전의 세력을 과시했던 장면으로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행사의 규모 여부는 국각의 경제력과 왕비의 세력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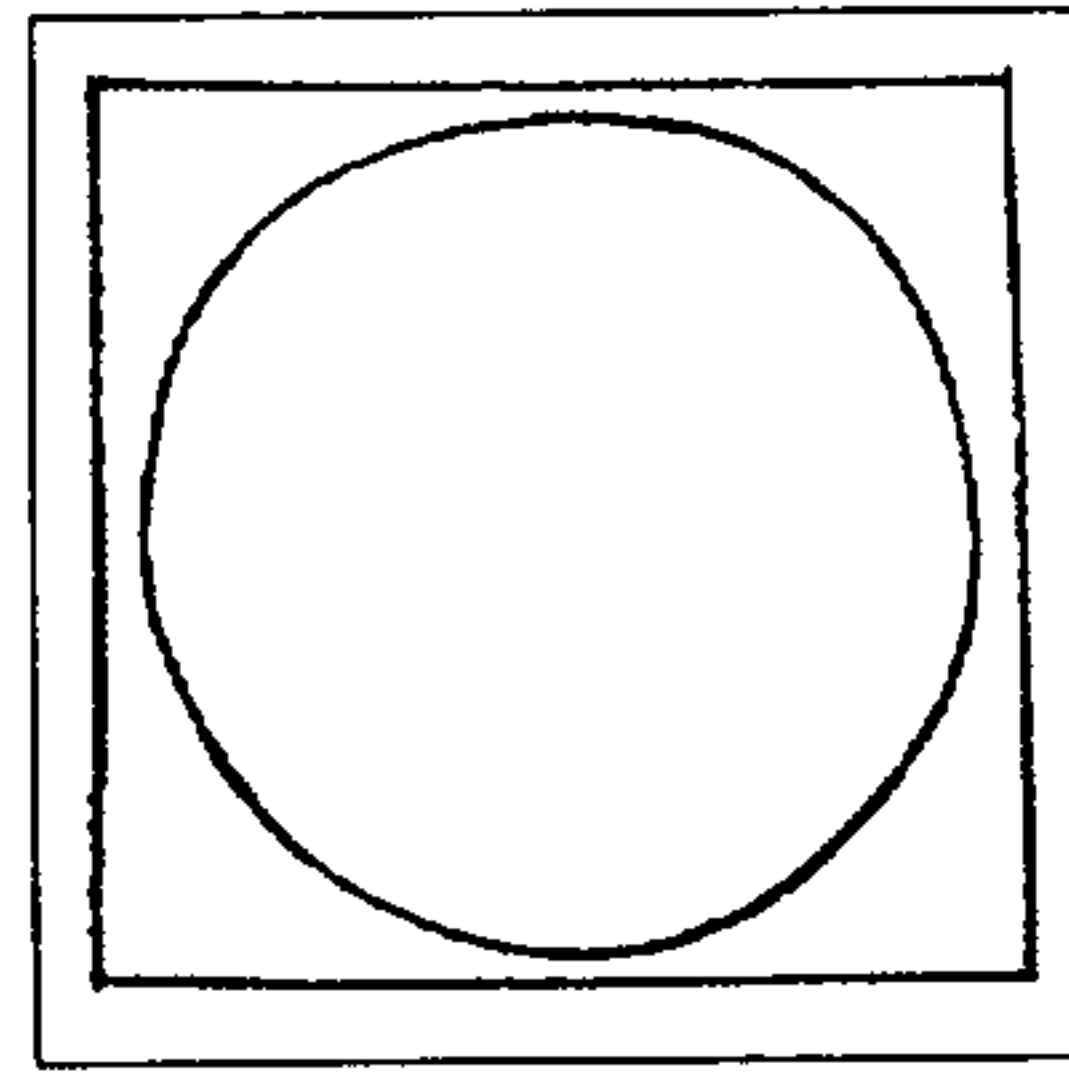
〈그림 16〉 산뢰



〈그림 17〉 용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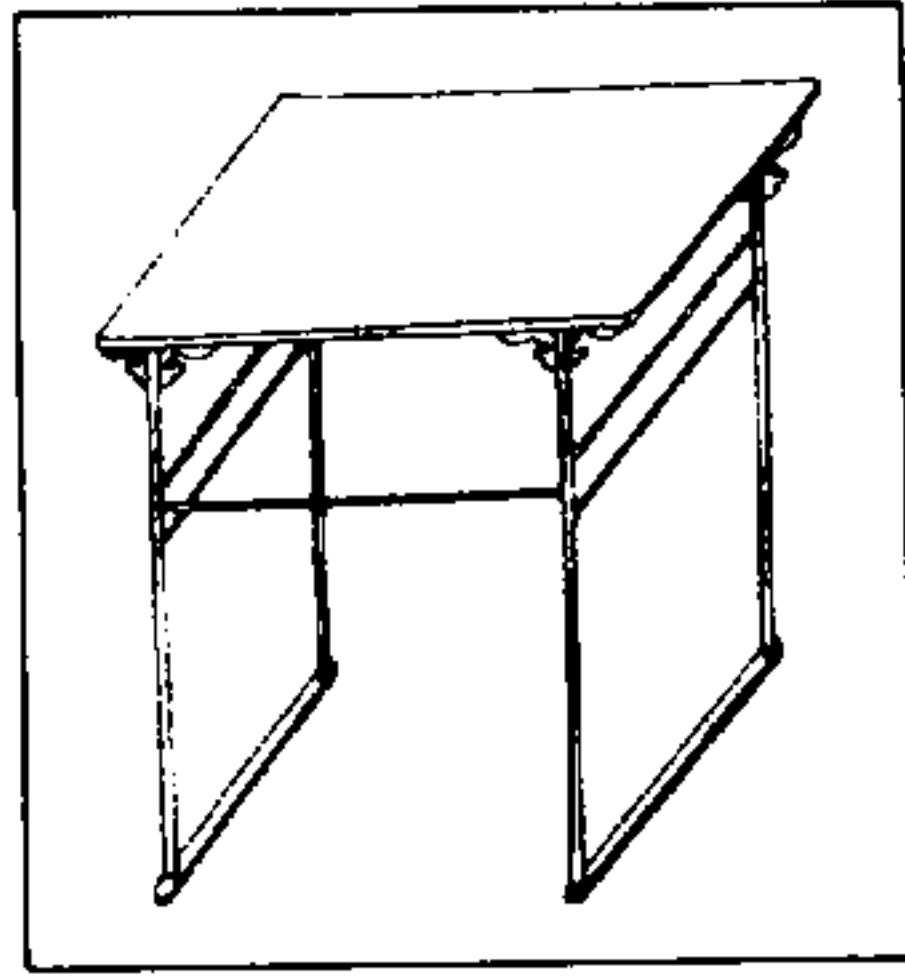


〈그림 18〉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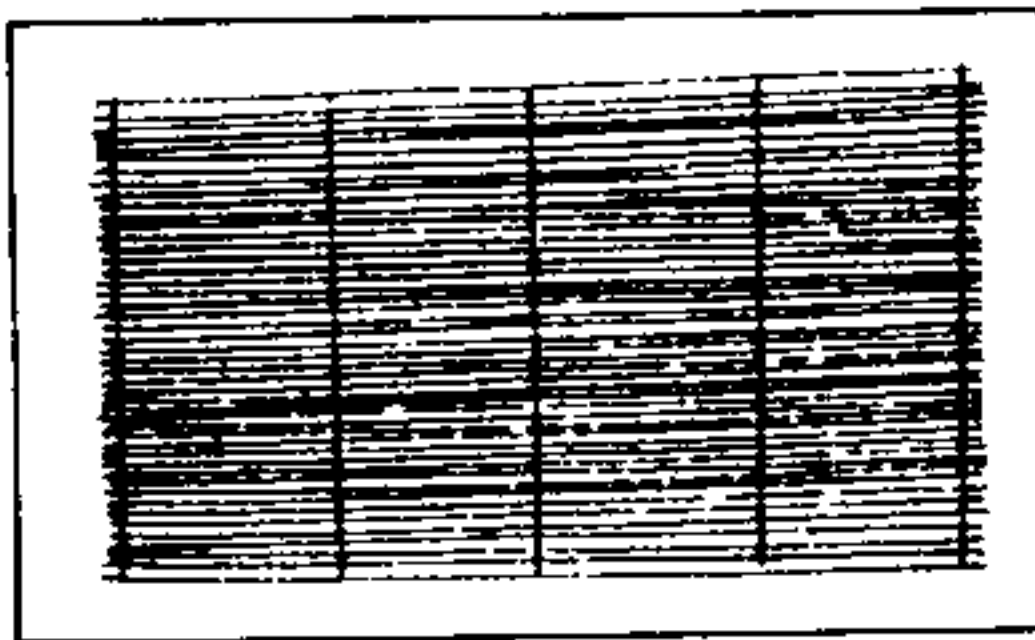
〈그림 19〉 점

45) 국역조선왕조실록 제1집(원전) 9집 4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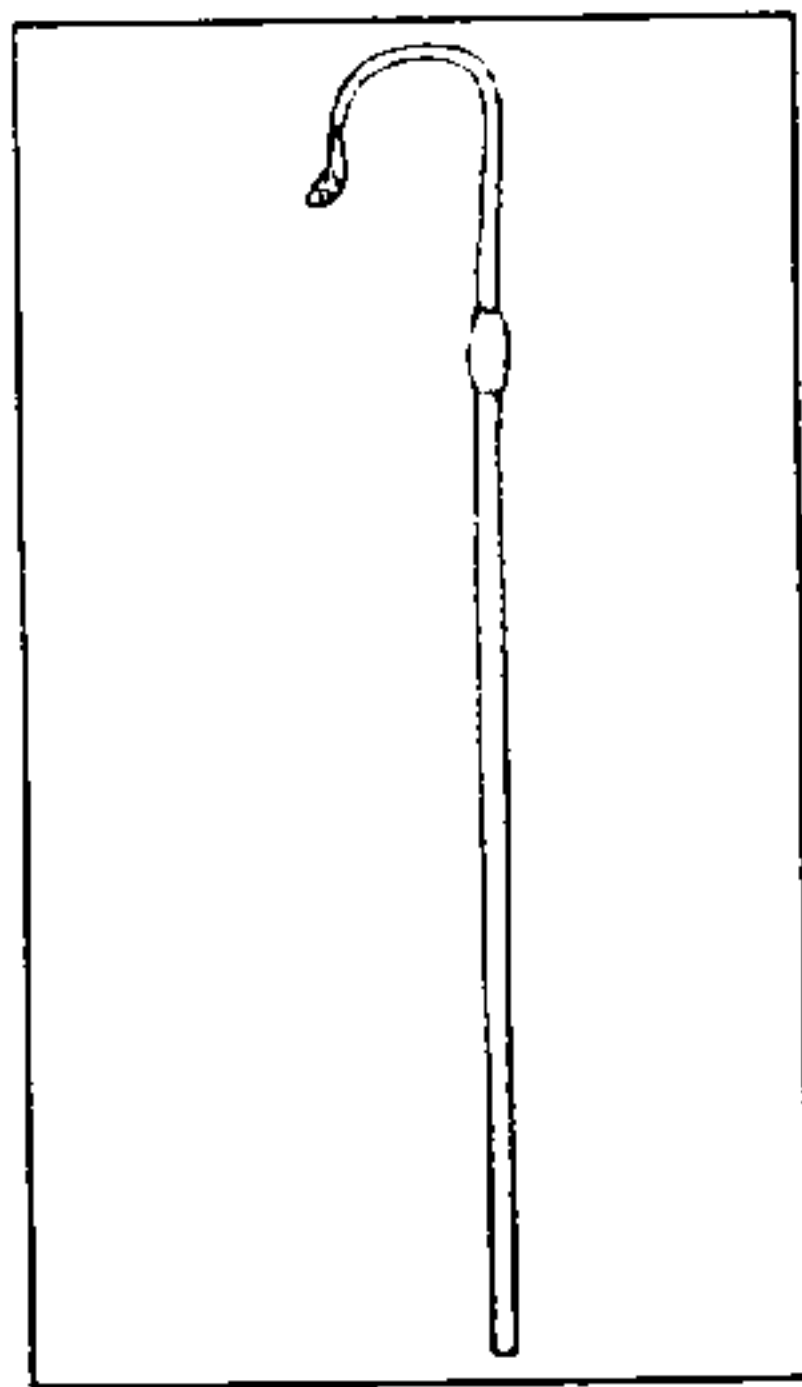
〈그림 20〉 시렁

소나무 시렁이다. 길이 1자 5치, 너비 9치, 다리 높이 1자 5치이며, 당주홍(唐朱紅)을 칠한다. 명무 이하의 시렁은 길이, 너비, 다리 높이는 앞의 것과 같되, 반주홍(礮朱紅)을 칠한다. 포백척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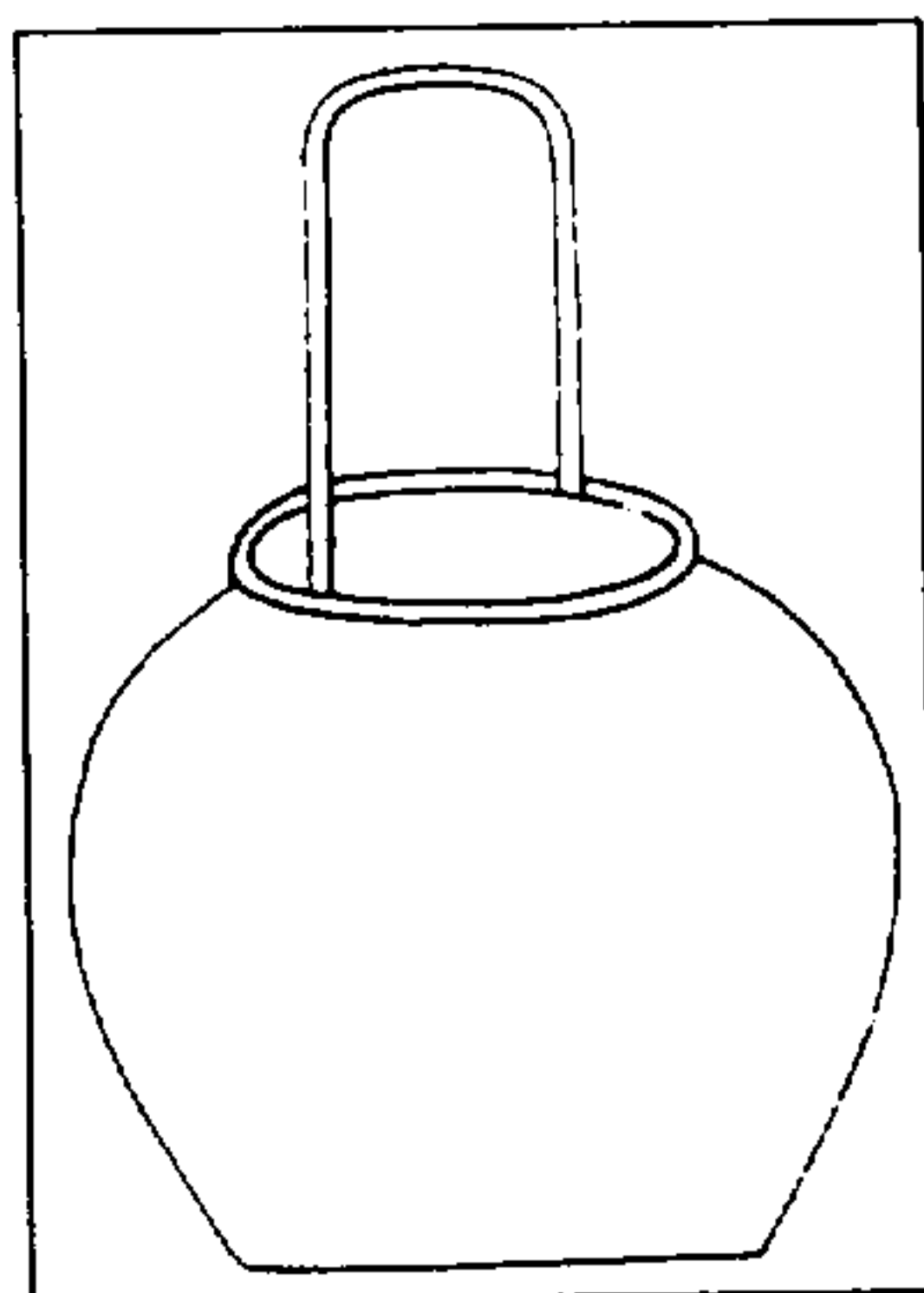
〈그림 21〉 잠 박

대잠박이다. 길이 1자 5치, 너비 9치이다. 백향사(白鄉絲)로 엮고 홍주(紅紬)로 선을 두른다. 시렁 위에다 편다. 포백천을 사용한다.



〈그림 22〉 갈고리

왕비가 사용하는 갈고리는 놋쇠로 만들고, 자루는 가래나무(楸)로 하여 용담칠(龍淡漆)을 한다. 자루 길이는 1자, 둘레 지름은 5푼이다.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한다. 헤빈 이하가 사용하는 갈고리는 숙동(熟銅)으로 만들고, 자루는 가시목(加時木)으로 하여 칠을 하지 않는다. 자루 길이와 둘레 지름은 왕비가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림 23〉 광주리

대광주리 이다. 높이 3치 3푼, 너비 4치이다. 손잡이는 대로 만든다. 높이 2치, 너비 1치 2푼이다. 포백척을 사용한다.

그림 16-23 친잠례시 사용도구



〈그림 24〉 성종대의 왕비 국의 (2000년 9월 경복궁에서 친잠복 재연)

(6) 행사후 포상 및 진연

성종8년 친잠후 진연은 대왕대비전이 윤택하지 않아 늦추어 시행되었다. 이는 대비전과 중궁전의 알력이 원인이었다. 임금이 승지 등에게 진연을 허락하도록 대비전에 청하게 한 후에야 진연을 허락 받아 베풀어질 수 있었다⁴⁶⁾고 「조선왕조실록」은 전하고 있다. 또 「성종실록」에는 “ 친잠례가 끝나고 종상 1품 이상과 참여했던 관리들에게는 주악을 베풀었고, 다음 날에는 중궁이 창덕궁 근정전에서 내외명부를 모아 노주연을 베풀고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⁴⁷⁾는 기록도 보인다

성종24년 3월 21일에는 친잠을 도운 뽕따는 여자와 잠모에게 면포를 하사하였다⁴⁸⁾는 기록으로 보아 친잠례는 성종시대에는 꽤 중요한 국가행사였던 것이다.

(7) 행사후 하교문

친잠례 후 백관들이 전을 올리고 하례하자 성종 8년 3월 14일에 농상에 힘쓸 것을 하교 하였다.

“옛일을 상고해 보니, 왕자가 친경해서 먼저 농사를 힘쓰게 하고 후비가 친잠해서 여공(女工)을 권하였다. 그 적전(籍全)과 공상(公桑)의 제도는 경사(經史)에 실려 있어 밝게 상고 할 수 있다. 대개 백성의 근본은 의식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의식의 근원은 농상(農桑)에 있다.

그러나 추울 때 갈고 더울 때는 김매는 것은 농사일의 심한 괴로움이고 가시를 뚫고 들어가서 뽕을 따는 것은 누에치는 수고로움이 더욱 심하다. 그러므로 근본에 힘쓰는 자는 적고 손을 놀리는 자가 많다. 이래서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나라에서는 손실이 있었다. 역대의 임금들이 농상이 급함을 알고 백성의 일에 힘써서 효험이 나타나도록 기대하지 아니함이 아니지만, 그러나 백성에게 농사일을 권장하는 것은 겨우 문서만 갖추었을 뿐 실

46) 국역조선왕조실록 제1집, (원전) 9집 437쪽.

47) 성종실록 제 78권 8년 3월

48)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 1집, (원전) 12집 287쪽.

상은 행하지 않았다.

내가 하찮은 덕으로 왕위를 이어 받아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스리기를 힘써서 백성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멀리 철왕(哲王)의 훌륭한 자취를 탐구하여 내 몸소 행하는 데에 기초를 두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에 성화(成化) 10년 맹춘(孟春) 어느 날에 동교(東郊)에 나아가 몸소 뇌사(耒漚)를 잡아 옛 방법을 강구하였다. 농(農)은 식량을 넉넉히 하는 길이고 상(桑)은 옷을 넉넉히 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예관에게 명하여 옛 법도를 상고하고 당시의 형편에 맞도록 참작하여 그 의식을 만들게 하고, 왕비는 또 금년 3월 14일(신사)에 내외 명부를 거느리고 다시 친잠의 예를 행했다. 아! 옛날 희실이 성할 때에 주공이 빈풍(飗風)의 시(時)를 올렸다. 거기에는 무릇 천도(天道)의 변화에 따라 인사는 조만(早晚)이 있는데 심고 수확하는 어려움과 누에를 치고 현(玄)·황(黃)을 만드는 곡절(曲折)이 섬세하게 모두 갖추어졌는데, 이는 인군(人君)된 자로 하여금 백성이 의지할 바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즐겨 듣고 또 몸소 행하였으니, 백성이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공역(功役)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여 농상에 그 힘을 다할 수 있고, 따라서 나라에는 그 재물이 넉넉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어느 집이나 의식이 풍족하여 태평의 교화를 이룰 것이다. 그 일을 감사(監司)로 하여금 수령(守令)에게 반포하고 수령은 촌향(村巷)에 전하게 하여, 필부(匹夫)와 필부(匹婦)로 하여금 모두 스스로 깊이 갈고 자주 자주 김매는 일에 힘을 다하여 봄에 경작하는 절후를 어기지 않게 하라. 누에를 번성하게 길러서 점차 옷과 솜이 넉넉하게 되고 향산(恒産)이 풍족하게 되면, 예악을 일으킬 수 있어 백성이 인(仁)하고 수(壽)하는 지경에 오를 것이고 국가는 지치(至治)의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 조정이나 민간에 효유(曉諭)하여 모두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⁴⁹⁾

49)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 1집(원전) 9집 439쪽.

2) 조선 후기의 친잠례

중종기 이후 명종, 광해군, 숙종, 선조대에 친잠례가 행하여 졌으나 영조 43년에는 거국적인 행사로 준비되었고 모든 의식절차는 성종기, 중종기, 선조조의 삼조실록을 고찰하여 행하여 졌다. 당시 300년 만에 재유되는 행사이고 (성종조 행례부터 계산된 것으로 생각됨) 보령 74세로 친중, 친잠을 동시에 행하게 되므로 영조 43년 3월 10일⁵⁰⁾에는 “명일에 실시하는 (試)는 잠과 (蠶科)로 이름을 짓고 수인들을 당일에 놓아주도록 명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로 준비되었다.

영조 43년 3월 10일에 있었던 친잠례는 조선역사상 가장 그 의미가 극대화되었던 행사라 할 수 있다. 영조는 43년 친경, 관예, 장종, 헌종, 친잠, 수견, 반사를 모두 행하였다.⁵¹⁾

또한 영조는 친잠의례를 작성케하여 후손으로 하여금 친잠의에 관련된 상세한 기록을 볼 수 있게 해 준 왕이기도 하다.

(1) 논의과정과 준비절차

영조 43년 1월 7일 예조에 날짜를 가려 친경, 친잠을 거행하라고 명하였으며, 동년 1월 18일에는 승지에게 『친잠의주』를 읽도록 하고 선잠예식에 대하여 전교하였다.

또한 같은해 1월 20일에는 의조에 진하받을 것과 습의, 기악 등에 관하여도 명하였다.⁵²⁾ 영조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 300년 간에 다시 거행하는 ...” 등의 감회 어린 내용의 전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거슬러 계산해보면 성종 8년(1477)이나, 성종 24년(1493)에 있었던 친잠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영조는 춘추관 당상과 낭청을 강화도 사고로 보내어 성종조와 중종 선조조의 실록 중에서 친경과 친잠을 거행한 내용을 등사해 오게 하여 참고하고 있는

50) 영조실록권 108 43년 3월

51) 박소동역, 앞의 책, 26쪽.

52) 국역 조선왕조실록제 3집, (원전) 44집 237면~238쪽.

데, 이는 친경과 동시에 친잠을 같이 거행한 전조의 의전 절차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 행사에 동원되는 내명부와 외명부의 인원과, 왕비를 비롯한 참여 인원들의 복장과 장비, 그리고 실제 뽕잎이 피는 시기에 맞추어 행사를 거행하도록 날짜를 조정하는 문제, 행사를 마치고 하례를 받고, 참여자에게 시상하는 등의 일까지 모두 한결같이 옛 전례를 원용하고 있다.

특히 왕비가 친히 거행하는 선잠신(先蠶神)에 대한 작헌례와 채상례를 중종조에 친잠을 거행한 바 있는 경복궁에서 거행하도록 하면서 영조는, “이번 이 예를 한 차례 거행함에 있어서 세 가지 감회가 깊다. 하나는 300년 된 옛 예를 다시 거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황조(皇朝)의 고사(古事)를 따라 시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함께 창업(創業)한 고궁(古宮)에 간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친잠을 거행하는 의미와 상징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전교와 계사의 끝 부분에 태묘에 지내는 고유제 의 어제 제문과 서릉씨(西陵氏) 작헌례의 어제 제문 등을 비롯하여 전문과 치사, 반교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⁵³⁾

영조기는 특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대하여 신하들간의 논의가 많았는데 이는 후대의 음악을 사용하는 기법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중사인 선잠에 악을 사용했던 전례를 따를 수 없게 되기에 곤전이 친히 뽕을 따고 대차로 나올 때 몽수로 하여금 이 악장을 연주하게 하였다.

(2) 친잠례 거행장소

영조는 창덕궁에서 행하였던 전대와 달리 경복궁 강녕전 옛터에다 제단과 채상단을 축조하여 친잠의 의미를 더욱 극대화하였다. 또한 제단의 규모 역시 선잠단의 제도를 모방하였다. 이 행사 후 선잠제는 관원을 보내 대신 거행하였지만 채상단에서 친잠의 행사를 거행한 일은 없었다. 친잠했던 강녕전 옛터에 영조 46년(1770)에 ‘정해친잠’이라는 친필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⁵⁴⁾

친잠의례에 의하면 작헌례는 경복궁 강녕전의 옛터 동편 제단에서 거행하고

53) 박소동역, 앞의 책, 18쪽.

54) 박소동역, 앞의 책, 9쪽.

친잠은 강녕전 옛터에서 거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⁵⁵⁾

(3) 거행시기

영조43년(1767)3월10일이며 이 날짜는 전조의 계춘(季春)의 길사를 정했던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4) 참여인원

실록이나 의궤에 자세한 참여 인원수는 나와 있지 않으며, 전조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규모가 크게 커졌으므로 전조의 100여명에 비해 충당된 인원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궤에 부족인원을 여기(女技)나 의녀(醫女)로 보충하자는 상소에 의녀로 보충하라는 전교가 나와있다.⁵⁶⁾

(5) 절차 및 순서

『친잠의궤』에 따르면

작헌례 정인 3월 10일진시(辰時)경

친잠례 같은 날 오시(午時)

진하 같은 날 미시(未時)

조헌례 같은 날 신시(申時)⁵⁷⁾로 기록되어있다.

① 선잠에 작헌하는 의식(작헌례)

기일 전에 해당 사에서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막차(幕次)를 평상시와 같이 배설하고, 또 찬만(饌幔, 음식 보관용 임시 장막)을 동쪽 유문 밖에 배설한다. 하루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신좌(神座)를 단 위 북쪽에 남향으

55) 박소동역, 앞의 책, 17쪽.

56) 박소동역, 앞의 책, 96쪽.

57) 박소동역, 앞의 책, 73쪽.

로 배설하고, 왕골 자리로 왕비의 판위(版位)를 단 아래 동남쪽에 서향으로 배설하고, 혜빈과 왕세손빈 및 참석하는 명부의 배위(拜位)를 남쪽 유문 안 남쪽 가까이에 자리를 달리하여 곁줄로 배설하되 북향으로 한다.

여러 집사(執事)의 자리를 단 아래에 평상시와 같이 배설하고, 집례(執禮)의 자리를 동쪽 계단 아래에 배설하고, 또 여러 집사의 바깥 자리를 서쪽 문 밖에 자리를 달리하여 곁줄로 배설하되 북향으로 한다. 혜빈과 왕세손빈 및 참석하는 명부의 외위(外位)를 단의 남쪽 문 밖에 자리를 달리하여 곁줄로 배설하되 북향으로 한다.

이 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이 들어와 축판(祝板)을 신위의 우측에 - 점(坫)이 있음 - 올리고, 향로와 향합을 촛불과 함께 신위 앞에 배설하고, 다음으로 제기를 범식대로 전설한다. 전사관이 들어가 제기에 음식 담는 것을 마치면, 전사관은 올라가 신좌(新座)에 신위판(神位板)을 배설한다. - 여러 집사가 오르내릴 때는 모두 동쪽 계단을 이용한다.

찬인(贊引)이 혜빈과 왕세손빈 및 참석하는 명부를 각자의 예복 차림으로 인도하여 외위로 나아간다. 여러 집사가 외위로 나아간다. 상의(尙儀)가 대차(大次)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중엄'을 계청한다. 여러 집사가 들어가 배위로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四拜)'라고 말하면, 여러 집사는 모두 사배를 한다. 사배가 끝나면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간다. 관세하고 닦고 나면 각자의 위치로 나아간다.

찬인이 혜빈과 왕세손빈 및 참석하는 명부를 인도하여 들어가 배위로 나아간다. 집사가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간다. 잔을 씻어 닦기를 마치면 광주리에 담아 받들고 준소(樽所)로 나아가 점(坫) 위에다 놓는다. 집례가 '상의는 행사할 것을 계청하라. [상의-계청행사]'고 말하면, 상의는 대차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작헌례를 거행할것[행작헌례]'를 계청한다. 왕비는 예복을 갖추고 수식을 엮고 관세하고 닦고 나온다.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동문 밖에 이르면 상의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규를 잡을 것[집규]'을 계청하고 상궁이 꿇어앉아 규를 올린다. 왕비가 규를 잡으면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들어가 판위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선다. - 같이 따라 올라갈 사람은 따라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 밖에서 머문다. - 집례가 '사배(四拜)'라고 말하면, 상의는 '국궁 사배 흥 평신(鞠躬四拜興平身)'을 계청

한다. 왕비는 국궁 사배 홍 평신을 한다. 헤빈 이하 배위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한다. - 찬자(贊者)가 전창(傳唱)한다. 먼저 절을 한 사람은 절을 하지 않는다.

집례가 '상의를 왕비를 인도하여 작헌례를 거행하라.'고 말하면, 상의는 왕비를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 상궁이 따라 올라간다. - 준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선다. 집준자(執樽者)가 덮개를 들고, 상궁 1인은 잔에다 술을 따르고, 1인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선다. 집례가 꿇어앉을 것을 말하고, 상의가 '꿇어앉아 규를 꿋을 것'을 계청하면 왕비가 꿇어앉아 규를 꿋는다. 헤빈이하 배위에 있는 자는 모두 꿇어앉는다.⁵⁸⁾ - 찬자가 전창한다.

상궁 1인이 향합을 받들고 1인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상의가 '세번 향을 올릴 것(三上香)'을 계청하고, 왕비는 세 번 향을 올린다. 상궁이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상궁이 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상의가 '잔을 받아 올릴 것을 계청하고, 왕비는 잔을 잡아 헌작하여 잔을 상궁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 향을 올리고 잔을 올리는 자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서고, 향로를 드리고 잔을 드리는 자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선다. - 상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을 것'을 계청하면 왕비는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신위의 우측에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상의가 '부복 홍 평신'을 계청하고, 왕비는 '부복 홍 평신'을 한다. 헤빈 이하 배위에 있는 자도 모두 '부복 홍 평신'을 한다.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례가 '사배'라고 말하면 상의가 '국궁 사배 홍 평신'을 계청하고 왕비는 '국궁 사배 홍 평신'을 한다. 헤빈 이하 배위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를 한다. - 찬자가 역시 전창을 한다. 뒤의 경우도 이와 같다. - 잠시 후 집례가 '사배'라고 말하고, 상의가 '국궁사배 홍 평신'을 계청하면 왕비는 '국궁 사배 홍 평신'을 한다. 헤빈 이하 배위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를 한다. 상의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음'을 아뢴다. - 찬자가 역시 전창한다. -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동문 밖으로 돌아온다. 상의가 규를 놓은 것을 계청하면 왕비는 규를 놓는다. 상궁이 규를 받는다.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대차로

58) 박소동역, 앞의책, 408쪽

돌아온다.

집례가 '망료(望療)'라고 말하면 찬인이 혜빈을 인도하여 망료위(望療位)로 나아간다. 대축이 축판을 가지고 망료하는 장소에 이르러 요시(療柴) 위에다 놓는다. 집례가 '태우라[何療]'고 말한다. 반쯤 타면 찬인이 혜빈을 인도하여 나오고 찬인과 여러 집사는 배위로 나아가 사배하고 나온다. 전사관(典祀官)이 예찬(禮饌)을 철상하고 신위판을 보관한 뒤에 내려와 물러간다.⁵⁹⁾

② 친잠례의 의식과정

기일 전에 액정서에서 채상단(採桑壇) 밖에 유악(帷幄)을 설치하는데, 사면에 문을 연다. 왕비의 악차를 단의 동북쪽에 남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혜빈의 차(次)를 악차 남쪽에 조금 동쪽으로 서향하여 설치하며, 왕세손빈의 차를 혜빈차의 남쪽에 서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차를 단위 서남쪽에 동향으로 하여 설치한다. 이 날에 상침이 왕비의 채상 욕위(採桑褥位)를 단 위 조금 동쪽에 동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혜빈과 왕세손빈의 채상의를 단 아래 북쪽 가까이 남향으로 하여 설치하며, 또 채상하는 내·외명부의 채상위를 단 아래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설치하는데, 모두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하되,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왕비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의 자리를 혜빈위의 서쪽 조금 남쪽에 설치하는데,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또 단 위에 왕비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의 자리를 왕비 채상위의 북쪽의 조금 동쪽으로 남향하여 설치하는데,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혜빈 이하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의 자리를 각 자리의 뒤에 설치한다. 여시(女侍)가 잠종(蠶種)·갈고리·박(箔)·광주리·시령 및 양잠에 필요한 기물을 상전(尙傳)에게 주고, 상전이 받아서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 및 잠모(蠶母)에게 주어 기다리게 한다. 왕비가 작헌례를 행하여 예를 마치고 다시 악차로 들어오면, 상궁 이하가 각기 그 복장을 입고 상기(尙記)갈 보(寶)를 받들고 모두 악차 앞으로 가서 사후(伺候)한다. 채상할 시각이 이르면 상의가 악차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한다.

59) 박소동역, 앞의책, 410쪽.



〈그림 25〉 친잠례 재연행사
(작헌례) (1999.10)



〈그림 25〉 친잠례 재연행사
(축판태우기) (2000.10)

혜빈·왕세손빈 및 채상하는 내·외명부가 각기 그 복장을 입는다. 전빈(典賓)이 혜빈·왕세손빈 및 채상하는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모두 단하의 자리로 가면,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은 모든 자가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상의를 부복하여 꿇어앉아 예를 행하기를 계청하면, 왕비가 상복(常服)으로 바꿔 입고 나간다.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채상단으로 나아가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 채상위로 가서 동향하여 선다.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은 자가 북쪽 계단으로 올라가 자리에 나가면 전빈이 상공(尙功)과 전제(典製)를 인도하여 채상위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상궁이 갈고리를 받들어 올리면 왕비가 갈고리를 받아서 빵을 따고, 전제가 광주리를 받들어 올리면 받아서 빵을 담는다.

왕비는 다섯 가지의 빵을 따는 데 그치고, 갈고리를 상궁에게 주면 상궁이 갈고리를 받으며, 전제는 광주리를 받들고 모두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단위 남쪽 자리로 가서 혜빈 이하의 빵 따는 것을 구경한다. 처음에 왕비와 채상여사(採桑女史)가 각기 갈고리를 혜빈·왕세손빈 및 채상하는 내·외 명부에게 준다. 왕비가 빵 따는 것을 마치면 전빈이 혜빈·왕세손빈,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차례로 빵을 따면, 광주리를 잡은 자가 받는다. 혜빈·왕세손빈이 각기 일곱 가지를 따고 내·외 명부가 각기 아홉 가지를 따면, 여사(女史)는 갈고리를 받아 광주리를 잡은 자에게 주고 물러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전빈은 혜빈·왕세손빈,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빈이 혜빈·왕세손빈 및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잠실(蠶室)로 나아가면, 상궁이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은 자를 거느리고 차례로 따라서 잠실에 도착한다. 상궁이 빵을 잠모에게 주면 빵을 받아서 잘게 썰어서 내명부에게 주고 한 잠박(蠶箔)의 누에에다 뿌려주어 먹게 하고, 이를 마치면 전빈이 혜빈·왕세손빈·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잠모가 단 아래로 내려가 먼저 고두례(叩頭禮)를 행하고 반상(頒賞)을 마치면, 잠모가 다시 고두례를 행한다. 상의가 왕비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예필을 아뢴다.



〈그림 27〉 친잠례 재연행사
(채상익) (1998.10)



〈그림 28〉 친잠례 재연행사
(1998)

왕비가 소차로 들어가 예복으로 갈아입고 수식(首飾)을 가하여 자리에 오르면 전빈이 혜빈·왕세손빈 및 내·외면 이하를 인도하여 예복으로 갈아입고 배위(拜位)로 나간다. 전찬이 '국궁·사배·홍·평신'을 창하면 혜빈 이하가 국궁·사배·홍·평신한다. 전빈이 혜빈 이하를 인도하여 단에 올라 시좌(侍座)한 후 잠모 등이 단 아래에 열지어 앉으면 음식을 내리고, 먹기를 마치면 물러가 선다. 이는 행사가 오래 진행됨으로 행사진행도중에 참여인원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다. 대부분 다식을 내렸다.

상의를 꿰어앉아 예필(禮畢)을 아뢰면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악차로 들어가며, 전빈이 혜빈 이하를 인도하여 각기 자리로 돌아간다. 조현례(朝見禮) 시각이 이르면 의식대로 행례한다.⁶⁰⁾

이 형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왕비와 공주·혜빈 등의 내외명부가 모두 엄숙한 절차를 거치면서 각기 행사에 맞는 의상과 머리장식을 바꾸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채상(常服)에는 상복(常服)을 갈아입은 행하여 채상에 편리하게 하였다.

③ 조현례(朝見禮) 의 절차

왕과 왕비의 위(位)를 악차내에 설치하고 실안과 향안을 준비하고 의장을 배열한다. 혜빈, 왕세손빈, 명부반수의 위를 설치하고 집례자들의 배위도 각각 설치한다. 상공이하의 예복을, 혜빈과 왕세손빈은 습의가수식한다.

외번(外嬪)을 아뢰면 전하가 곤룡포에 익선관을, 왕비는 습의가수식하고 나와 자리에 오른다. 상기가 재상에 보를 올려놓는다. 혜빈이 배위에 나가 '국궁사배홍평신'하고 창하면 전언이 대신 "혜빈신모씨군운"라고 차사한다. 하례를 마치고 복위하고 다시 예를 갖추면 상의가 혜빈과 더불어 함께 경하한다고 말한다. 이와같이 왕세손빈, 명부반수 등도 차례를 알현하고 예필을 아뢰면 전하와 왕비가 악차에 나아간다.⁶¹⁾

④ 수건의 의 절차

상에 올린 고치를 어전에 드리고 치하받는 의식인 수건의 의 의식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하루 전에 상침이 전하의 자리를 편전 북쪽 벽 조금 동쪽에, 왕비의 자리는 전내(殿內) 북쪽 벽 조금 서쪽에 설치하는데, 모두 남향으로 한다. 향안(香案) 두 개를 전외(殿外) 좌우에 설치하고 혜빈의 배위는 혜빈의 자리 뒤에, 명부의 배위는 그 뒤

60)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3집(원전) 44집 245쪽.

61) 박성실, 앞의책, 78쪽.

에 설치한다, 모두 동쪽이 위가 되게 하며,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하되, 모두 북향으로 한다, 이날에 상공(尙功)이 대나무 상자에 누에고치를 담아 안상에 둔다. 3각(三刻) 전에 명부가 각기 예복을 갖추고 모여 오며, 2각 전에 혜빈이 예복을 갖추면 수규가 앞에서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간다. 왕세손이 익선관·곤룡포를 갖추면 전빈이 앞에서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고, 왕세손빈이 예복을 갖추면 수규가 앞에서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면, 전빈이 명부를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간다.

시각이 이르면 상의가 꿰어 앉아 중엄을 계청하고 조금 후에 외판(外辦)을 계청한다. 전하가 익선관·곤룡포를 갖추면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나가 자리에 오른다, 왕비가 예복을 갖추면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나가 자리에 오른다. 향로의 연기가 피어오르면 산선(緜扇)·시위는 평상시의 의식대로 한다. 사찬이 '사배'라고 하고 전찬이 '국궁·사배·홍·평신'을 창하면, 혜빈·왕세손·왕세손빈 이하 명부가 '국궁·사배·홍·평신'한다. 상공(尙功)이 상자(箱子)를 받들고 전하의 좌전(座前)으로 가면 전하께서 일어선다. 상공이 받들어 보인 후 왕비의 좌전으로 가서 올리면 왕비가 서서 받아 상의에게 주고, 상의가 꿰어앉아서 받아 상복(尙服)에게 준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고 왕비도 자리에 오른다. 사찬이 '사배'라 하고 전찬이 '국궁·사배·홍·평신'을 창하면, 혜빈·왕세손·왕세손빈 이하 명부가 '국궁·사배·홍·평신' 한다. 상의가 좌전으로 나가 부복하여 꿰어앉아 예필을 아뢰면,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 오고 왕비도 자리에서 내려와 안으로 들어간다. 수규와 전빈이 각기 혜빈·왕세손·왕세손빈 이하의 명부를 인도하여 나간다.⁶²⁾고 되어있다. 이것이 수견의 의 모든 절차인 것이다.

수견의는 수식을 가하지 않은 의복으로 되어있어 수견시 간편하도록 예복만을 입고 행하여 졌다.

62)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3집 (원전) 44집 246쪽.



〈그림 29〉 친잠례 재연행사중 왕비입장



〈그림 30〉 친잠례 재연행사중 내·외명부 입장



〈그림 31〉 친잠례 재연행사중 왕비입장



〈그림 32〉 영조대 왕비 국의재연



〈그림 33〉 영조대 후궁과 공주의 의상재연

(6) 행사후 포상과 진연

영조 43년 1월 24일 잠모에게 각기 면포 1필씩 하사케 하였고⁶³⁾ 49년 3월 5일 정해년 친잠시의 기민 잠부등을 불러 각각 쌀과 비단을 내렸다는⁶⁴⁾ 기록이 있다.

(7) 행사후 하교문

①친경. 친잠의 의의에 대한 하교문

영조는 친잠례 의 의식이 끝난다음 다음과 같은 하교문을 내렸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친경은 열조(列朝)에서 이미 행하였으나, 관예(觀禮)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없으므로 감히 황명(皇命) 선종(宣宗)의 고사를 이끌어 행한 것이다. 오늘날에 임오년·을유년 양년의 예에 의해서 수맥(受麥)하는 일을 하명하였고, 지신사(知申事)의 아뢰를 인하여 헌종(憲種)·장종(藏種)의 일을 유신으로 하여금 『주례』와 『예기』를 널리 상고하게 하여 이에 관한 고례(古禮)가 있었음을 알았다. 이번의 친경·친잠은 바로 3백년 만에 두 번 있는 일이니, 의문(儀文)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친잠의주』는 「속오례의(續五禮義)」에 추록(追錄)되어 있으니, 이미 상고한 후에는 고례를 마땅히 회복하게 된다. 이로써 친경을 미루어 보면, 장종(將種)은 바로 이때이고 헌종(獻種)은 명년 봄이 하는 일이다. 친잠은 바로 궁중(宮中)의 일이기 때문에 누에고치를 보관한다는 글이 없고 단지 종자를 물어 씻는 일만 있는데, 이미 종자를 씻는다면 누에고치를 보관하는 것은 저절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또 『예기』의 누에고치를 바치는 의례로써 보건대 임금과 왕후(王后)가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서로 함께 하는 것이다. 친경·친잠 후에 임금이 보리[麥]를 받고, 왕후가 누에고치를 받는 것은 그 뜻이 한가지이다. 『주례』는 주공(周公)이 지은 것인데, 아! 주공이

63) 국역조선왕조실록 3집, 44집 239쪽.

64) 국역조선왕조실록 3집, 44집 448쪽.

아니면 어찌 이런 예(禮)가 있었겠는가? 이는 바로 물을 담아도 새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그 임금의 종자를 보관하고 그 왕후는 누에고치를 보는 것이니, 어찌 한갓 의문(儀文)을 위해서이겠으며, 또 어찌 구경거리를 위해서이겠는가? 이는 바로 자성(桑盛)을 중히 하고 제사를 중히 하는 뜻이며, 또 백성들에게 농상(農桑)의 중요함을 보이려는 뜻이다. 아! 80세를 바라보는 늙은이에 이에 3백 년 만에 성대한 일을 쫓아서 삼가 이 예를 행하니, 의문이 마땅히 보관하고 누에고치를 보는 것은 바로 오늘의 일이다. 이번엔 내가 마땅히 보리를 받을 것이며, 내전(內殿)도 마땅히 누에고치를 받아야 한다. 의주를 장차 하교할 것이니, 이로써 우선 반포하는 것이었다.⁶⁵⁾

② 친경, 친잠례 후 고묘와 진하에 대한 전교문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신과 예조 당상이 친경(親耕)과 친잠(親蠶)의 예를 이룬 후에 고묘(告廟)·진하(陳賀)하기를 번갈아 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에 고하고 아래로 반포하는 절차는 실로 그만둘 수 없다.”

하고, 전교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내가 진하(陳賀)에 대해서는 마음이 금석(金石)과 같으니,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비록 청하더라도 전후해서 굳게 거절하였었다. 그러나 친경·친잠은 나라의 근본이다. 친경·친잠은 시조리(始條理)이고, 장종(藏種)·수견(受蠶)은 종조리(終條理)인데, 어찌 금년 하루에 이 예를 겸하여 행할 줄을 뜻하였으랴? 장종은 자성(桑盛)을 위한 것이며 수견은 현담(玄統)을 중히 여겨서이다. 아! 친경·친잠을 함께 행한 것은 3백 년에 두 번 있게 된 일이요, 장종·수견 역시 몇 천년 맡겨 둔다면 어찌 인자(人子)의 도리이겠는가? 처음에는 삭제(朔祭)에서 겸하여 고유하고자 하였다. 아! 다음 달에 무슨 마음으로 하례를 받겠는가? 또 이미 달을 넘긴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마땅

65) 국역 조선왕조실록, (원전)44집 253쪽.

히 29일 첫새벽에 먼저 묘사(廟社)에 고유(告由)하고, 그날 전(殿)에 임하여 중외에 반시(頒示)하겠으니, 저경궁(儲慶宮)·육상궁(毓祥宮)·휘령전(徽寧殿)의 고유도 일체로 거행하라.

당일에 내전(內殿)의 하례(賀禮) 역시 전례에 의해서 하고, 세손(世孫)이 백관을 거느리고 예를 행하되 수하(受賀)는 그만 두라. 반사(頒赦)와 백관의 가자(加資)등의 절차는 의식(儀式)대로 거행하고, 경과(慶科) 역시 정시(庭試)로 실행하되 알성(謁聖)을 겸행하라.⁶⁶⁾ 승지에게 명하여 판부사 서지수(徐志修)에게 돈유(敦諭)하여 들어오도록 하고, 참반(參班)할 때에 직명(職名)이 없는 자는 2품 이상의 당상·당하를 물론하고 해조로 하여금 일체 군직(軍職)에 부치게 하였다.

〈표 1〉 성종기·영종기 친잠례 의례구조의 비교표

	전기 (성종기)	후기 (영조기)
논의과정과 준비절차	성종 7년 8월 22일 승정원에 전교 친잠례의 구례를 상고토록하고 같은 해 9월 25일 예조에서 필요한 절목을 고전을 참조하여 시행	영조 43년 1월 7일 친잠례 거행을 명하였으며 옛 전례를 모두 원용하였음
거행장소	창덕궁 후원에 친잠단을 쌓아 거행	경복궁 강년전 옛터에 제단과 채상단을 축조하여 거행
거행시기	성종 8년(1477) 3월 14일	영조 43년(1767) 3월 10일
참여인원	중심인물 40여명과 보조자 60여명	규모확대로 인하여 100여명 이상으로 예측
절차 및 순서	선잠단에서 선잠제를 치른 후 친잠례 거행	작헌례, 친잠례, 진하, 조현례, 수견의 순서로 거행
행사 후 포상 및 진연	종상 1품 이상과 참여 관리들에게 주악을 베풀었고 다음날 내외 명부에게 노주연을 베풀고 물건을 차등 있게 내림, 뽕따는 여자와 잠모에게 면포를 하사	영조 43년 잠모에게 면포 1필씩 하사 영조 49년 정해년 친잠시 기민 잠부 등에게 쌀과 비단 하사
행사 후 하교문	백성들에게 농상에 힘쓸 것을 하교	백성들에게 농상에 힘쓸 것을 하교

66)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 3집.(원전) 44집 253쪽.

Ⅲ. 친잠례의 화장과 치장의 특성

1. 화장

친잠례 행사시 사용되었던 특별한 화장법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조선시대 거국적 행사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응장(凝粧)일 것으로 예측된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사치와 퇴폐풍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사치스런 옷차림과 장신구, 화장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금지령이 내린바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인의 평상시 치장이 고려시대에 비하여 훨씬 담백해졌다. 그것은 “조선시대 지배층의 생활사상 탓이지만, 기생과 궁녀 등 직업 여성들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분대화장에 대한 기피 관념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도 없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산업구조가 복구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화장품 만드는 일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전완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국시대에 생성된, 한국인의 고유 미의식인 영육 일치사상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외형상 크게 변모한다. 신체가 정결해야 마음도 정결하다는 사상, 즉 내면의 미와 외면의 미가 동일하다는 사상으로 바뀐 것이다. 얼굴에 눈썹을 그리고 분을 바르고 연지를 그리되 본래의 생김새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였으며, 화장한 모습이 화장하기 전보다 확연하게 달라 보이면 야용(冶容)이라 하여 경멸하였다.⁶⁷⁾

조선조에 있어서 화장 문화는, 여염집 부녀자들보다는 기녀나 궁녀와 같은 특수직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혼 외출등의 의식행위로 개념이 바뀌어갔다.

67)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87, 57쪽.

이것은 조선조의 유교사회가 요구했던 여성의 용모가, 표면적인 걸치레나 화려함보다는 후덕한 행실에서 오는 내면적인 미(美)를 제일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남성들은 부인들에게 점잖고 운치 있는 용모를 중용했고,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이것을 여성미의 표준으로 삼음으로써 표면적인 얼굴 화장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⁶⁸⁾

내면의 아름다움(內面美)과 외면의 아름다움(外面美)을 동일시하는 상황아래에서는 우선 피부의 청결을 중시하게 된다. 또한 내·외면 미를 동일시하는 사상의 영향으로 흰 피부를 호상(好尙)하는 동시에 단정한 몸가짐을 간직하고자 노력하였다.⁶⁹⁾

조선조 여성의 화장은 정철의 시조에

내 양자(樣子) 못 고은줄 낸들 아니 짐작하라
연지(臙脂)논커니와 면분(面粉)도 아년노라
어뒤셔 이 냥즈 가지고 날 괴쇼셔 흐리오.⁷⁰⁾

라고 했듯이 연지와 분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서 분대는 백분화장과 눈썹 화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분·연지·눈썹화장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당시 여성들의 얼굴 단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대별로 차이가 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장식은 분을 바르고 꾸민다는 것이다. 담장은 우아하고 얹은 화장을 나타내고 염장은 짙은 화장, 요염한 분위기를 풍긴다. 농장은 야용과 함께 사용, 짙은 화장, 두터운 화장을 말한다. 응장은 농장과 유사하나 더욱 또렷하게 꾸민 상태로 신부화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볼 때 친잠례란 거국적행사시 사용되던 화장은 응장(凝粧)으로 추정된다.

먼저 분(粉)화장의 풍속을 보면, 여기에 사용되었던 백분(白粉)은 아연을 녹여서 만든 연분(鉛粉)이었다.

68)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일지사, 1988, 384~385쪽.

69) 전완길, 앞의 책, 1987, 59쪽.

70) 정병욱 편, 『시조문학사전』, 신병문화사, 1966, 109쪽.

한편 이러한 화장의 풍속은 궁중에서도 성행했던 것으로, 백분을 담았던 궁중 용 은제 화장용구를 보면, 조선조 분화장의 풍속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백분 화장의 생명은, 백분이 얼굴 피부에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데 있었다. 그런 만큼 백분을 바르기에 앞서 얼굴에 난 솜털을 없애주는 것이 또한 풍속이었다. 그 방법은 굵은 털은 족집게로 뽑아주고, 잔털은 명주실을 고아가면서 아래서 위로 옮겨가면서 뽑아 주었다. 조선조의 여성들은 화장에 앞서 얼굴의 솜털뿐 아니라, 이마와 머리털의 경계선에 있는 잔 머리털을 족집게로 뽑아주었던 것이다.⁷¹⁾

분화장은 조선조 말엽에 이르러 복숭아빛 분이 나오면서, 일반 여성들은 흰백분을 바르는 기녀와 차등을 두고자 의식적으로 이것을 바르는 경우가 많았다.⁷²⁾

조선조 야용에 있어 백분 화장에 이어지는 것은 눈썹화장이었다. 눈썹화장은 다른 부위의 화장보다 그 수정이 손쉬운 편으로 눈썹 술이 너무 많아 질다고 생각되면 뽑아서 연하게 해주었고, 술이 너무 적어 눈썹이 너무 연하다 싶으면 진하게 그려주었다.

아울러 눈썹의 곡선은 당시 버들눈썹이 유행이었으므로, 눈을 중심으로 약간 희게 그려주는 것이 풍속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헌에 따르면 당시의 여성들은 반드시 검은색이 나는 눈썹 먹만으로 눈썹의 모양이라든가 색깔을 조정했던 것 같지는 않다.

『지봉유설(芝葦類設)』에, “당시(唐詩)에 ‘아황 그리기를 배워서 반도 이루지 못했네.’라고 하고, 또 ‘달 형상의 눈썹을 그리고 누른빛을 바른 위에 그린다.’라고 하였다. 상고하여 보니 요즘 궁녀들의 누런 눈썹, 흑단장(黑丹粧)의 법은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리하였다. …(중략)… 목란시(木蘭時)에 ‘거울에 대하여 화황(花黃 : 누런 분)을 바른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바, 눈썹이 너무 검으면 딱딱한 느낌을 주게 되므로 누런 분을 발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화장법은 자연미를 강조하기 위한 화장법으로서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는데서 알수있듯이 아름다움에 대한 조선시대 여인들의 뛰어난 미적감각을 알수있다.

71) 전완길, 앞의책, 86쪽.

72) 조효순, 앞의책, 387~388쪽.

이밖에도 눈썹화장에 대한 그들의 관심도는 『규합총서』에 ‘십미요(十眉謠)’라 하여 원앙(鴛鴦)·소산(小山)·오악(五嶽)·삼봉(三峯)·수주(垂珠)·월릉(月稜)·분초(分秒)·함연(涵烟)·불운(拂雲)·도훈(倒暈) 등 10가지 눈썹형과 더불어 이에 관한 설명을 부연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⁷³⁾

이것은 중국의 눈썹 양식을 옮긴 것이지만, 그 시대에 다양한 눈썹의 모양이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의 화장은 피부 자체를 부드럽고 윤기 있게 가꾸어 주었을 때 한층 효과적인 아름다움을 발휘하게 되고 그 당시 희고 투명한 옥(玉)같은 피부를 희구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여인들은 옥 같은 피부를 간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발향의 풍속 또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특별히 조선조에 와서는 식물을 이용한 향료 외에도, 사향노루의 향낭을 말려서 만든 사향이라는 향료가 발달하였다. 조선사람들은 사향을 얹게 희석하여 향갑이나 향낭에 넣어 몸에 지님으로써 은은한 향기가 풍기도록 하였다. 또한

73) 憑虛閣 李氏 정양완 역주 『규합총서』, 1975, 231~233쪽.

- ①원앙(鴛鴦): 원앙이 날으니 물결이 일어나는 구나. 연기 이 날에 오히려 고우니 근심이 아리따운 눈썹에 무르녹느니 두 원앙이어라.
 - ②소산(小山): 春山이 비록 적으나 구름 머리에 일어났구나. 雙娥이 같으니 능히 한가한 근심을 잊었구나. 산위에 비오니 눈썹이 또 응하더라.
 - ③오악(五嶽): 못 봉우리 參差하니 오악이 근거하네. 가을 문채 물결이 높은 산만 같지 못하여라. 저 눈썹 길미여 자주 찜기지 마라.
 - ④삼봉(三峯): 바다 위 삼산을 바라보니 아득히 채색이 나는구나. 옮겨 거울을 마주보니 눈에 비치는 구나. 은해(銀海:눈)마르면 삼봉이 사라지리.
 - ⑤수주(垂珠): 다섯말 진주로 蛾眉를 샀네. 빌어 묻노니, 아미를 무엇에 비길꼬, 군전에 십이승을 비취리라.
 - ⑥월릉(月陵): 눈썹은 안보이고 달만보이네. 월궁(月宮)의 도끼 흔적이 닦아 이지러졌으니 미인의 눈썹위에 별렸구나.
 - ⑦분초(分稍): 뿔(山)를 그려 雙鳳같으니 푸른 것이 떨어져 맑기가 내(川)같도다. 그런 눈썹이 모름지기 이와같으니 紅脂額上에 春山오네.
 - ⑧함연(涵烟): 눈썹이 나에게 이르기를 맑게 지으면 가을비 소술한 냇물같고 화려코자 하면 봄바람에 맑은 세 뿔(嶽)로 구나.
 - ⑨불운(拂雲): 꿈에 高堂에 노니 구름기운이 바로 눈썹에 당하였네. 새벽 바람이 불되 끊어지지 아니하네.
 - ⑩도훈(到暈): 粧臺에 鐵月이 높았고 옥니에 청점이 길었네. 가느다란 손으로 거울을 마주하니 아름다운 봄바람이 몇 번이나 그렸는지
- 로 정리한다.

옷에 향기를 스며들게 하는 훈의 향도 발전하였다⁷⁴⁾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해 옛 한국인들이 여러 종류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이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궁중의례 친잠례 시 화장법을 미루어 추측컨대 왕비와 내·외명부, 상궁 등 궁의 의례 행사에 참여한 모든 여인들은, 특별히 왕비가 주관한 이 행사에 각자의 모습을 최대한 정성들여 가꾸었을 것이다. 이렇게 공들인 화장과 치장은 전문가인 수모(手母)의 도움을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요즘의 미용사처럼 전문직업으로 수모(手母)가 있었는데 수모는 일반인의 신부화장을 주로 하였으나 여염집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궁중행사에도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⁷⁵⁾

옥같이 투명한 피부에 맑고 환한 분화장, 본인의 얼굴형에 맞추어 그린 눈썹 형태와, 부드러워 보이도록 한 눈썹의 색상, 아름다운 얼굴색과 입술을 표현하기 위한 연지, 그 밖에 아름다움을 돋보이기 위한 방향까지 많은 공을 들였을 것이다.

조선 조정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경장(鏡匠) 및 소장(梳匠)이 있었고, 이외에 분장(粉匠)과 향장(香匠)이 관장으로서 존재하였는데 이곳에서 행사용 향과 궁중용 향수·향료를 제조하였을 것이며, 분자 역시 궁중의 각급 여인용분, 외명부용 분과 기생용 분을 제조하였고 그 기능으로 보아서 연지·머리기름 등도 제조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⁷⁶⁾ 이처럼 특별히 조정에서 관장한 곳에서 만든 재료들로 인하여 조선의 상류층 여인들과 궁중의 여인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화장술이 발달을 것이다. 친잠례 행사시 왕비를 비롯한 모든 궁중 여인들이 자기를 돋보이도록 화장을 하였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두발양식과 수식(首飾)

친잠례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궁중여인들은 두발의 모양과 장식에 대해 신경을 썼다. 인간이 머리카락에 신경을 쓰게 된 기원을 확실히 알기

74) 발향은 큰행사인 친잠례시에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75) 이숙연, 미니멀리즘을 활용한 화장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1999, 25쪽.

76) 전완길, 앞의 책, 67쪽.

어려우나 농경의 정착생활이 가져다준 여유가, 용모를 미화시키고 간결을 추구하는 본뜻을 발동시켰을 것은 추측키 어렵지 않다.⁷⁷⁾ 조선조의 두발양식은 영·정조의 발제개혁이 단행되기 전까지는 점차 극심한 사치풍조문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선조의 궁중여인을 비롯한 일반 여인들의 머리형태를 나타내주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단지 한정된 자료들과 문헌에 의하여 당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 두발양식

상류사회에서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모양에서는 가체로 구성되는 머리 종류로 큰 머리, 어여머리, 대수, 엷은머리, 첩지머리, 조짐머리, 새앙머리·쪽진 머리(낭지머리), 뿔은 머리 등이 있어 지체와 때에 따라 달리하였다.⁷⁸⁾

궁중의례였던 친잠례가 행해졌던 때의 두발양식은 다음과 같다.

(1) 큰 머리

큰 머리는 궁정에서 의식때 하던 머리의 일종이며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큰 머리를 엷은 형식이다. “큰 잔치때 대례복이나 소례복에 하는 머리형으로 비·빈·공주의 경우는 사람의 두발(頭髮)로 만든 것이고 내인(內人)들은 나무로 만들어서 까맣게 칠을 하여 이것을 쓰면 흡사 머리 같았다. 한다.” 원삼(圓衫)을 입고 큰 머리에는 칠보수식(七寶首飾)을 하고 금박당의(金箔唐衣)에는 옥봉잠(玉鳳簪), 조잠 등을 꽂는다. (그림26참조)

(2) 어여머리

예장(禮裝)할 때 머리에 엷는 다래(月子)로 된 커다란 머리를 말하는데 머리에 솜

77) 조효순, 앞의 책, 401쪽.

78)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293쪽.

족두리(어염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다래로 된 커다란 머리를 얹어 옥판과 화장으로 장식하였다. 어어머리는 큰 머리에 버금가는 예장용으로서 궁중에서나 반가부녀(班家父女)들이 하였는데 상궁으로는 지밀상궁(至密尙宮)만이 하였다. (그림27참조)

(3) 조심 머리(조짐머리)

이것도 의식 때 궁정에서나 반가부녀들이 하던 머리로서 열두가닥으로 뿔아 쪽지 듯한 머리 모양으로 궁정(宮廷)에서나 반가(班家)에서는 「첩지」를 부녀자의 머리위 가리마를 꾸미는 장식품으로 조선시대 역대 왕비, 세자비, 삼정승의 부인들인 외명부 양반층의 부인들이 예장할 때 사용하였다.(그림28참조)

(4) 첩지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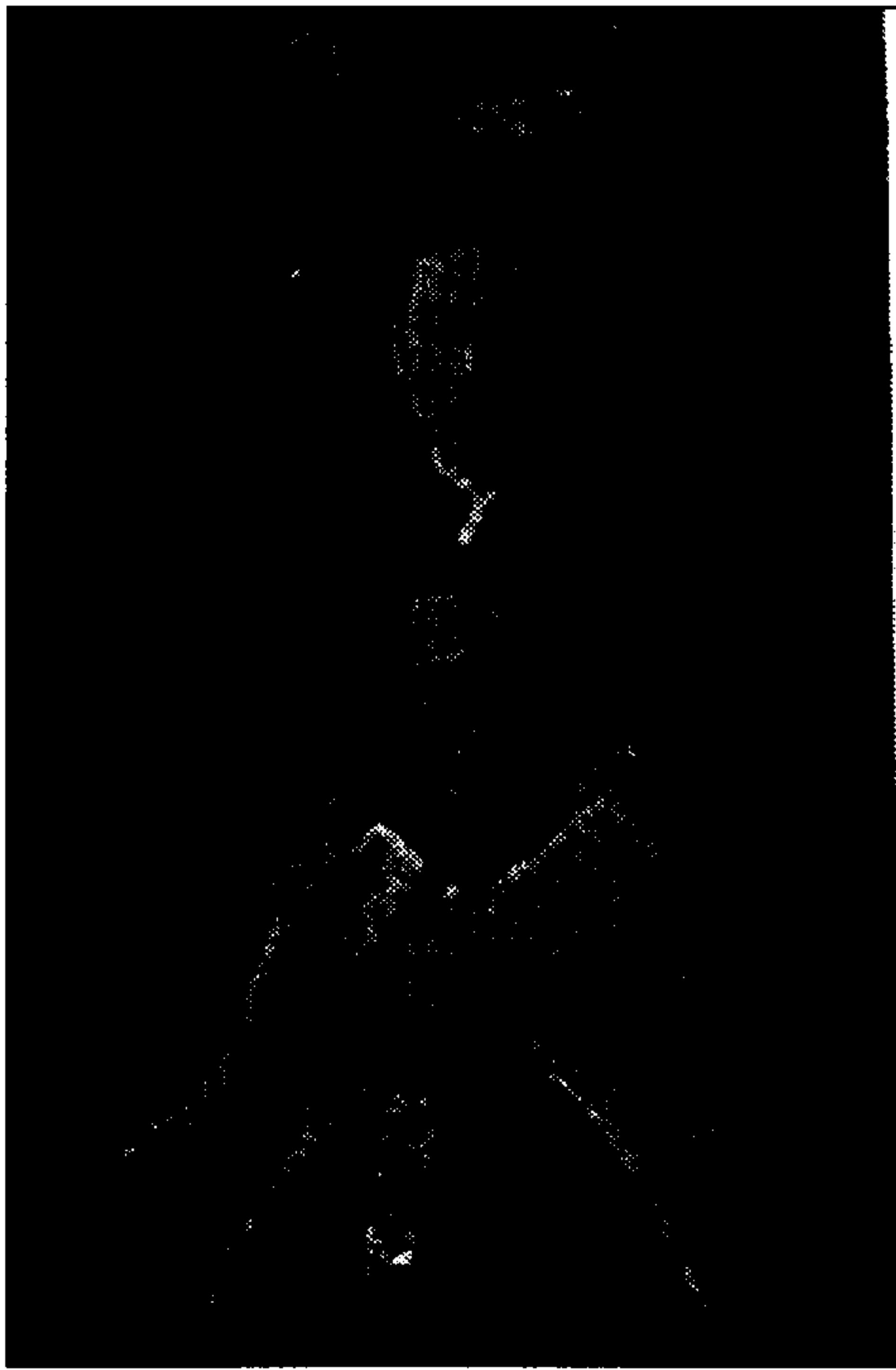
이것도 예장(禮裝)할 때의 머리로서 첩지 좌우에 긴 머리털을 단 것을 가마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느긋 느긋 양쪽으로 뿔아서 뒤의 머리와 한데 묶어서 쪽을 진 머리 모양이다. 이 첩지의 금속 장식은 화관(花冠)이나 족두리의 받침이 되는 것이기도 하였으며 궁중에서 평상시에도 이 첩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신분상하를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궁중법도에 따라 어느 때 화관이나 족두리를 쓰게 될지 모르므로 항시 하고 있었으며 일명 뿔머리라고 하였다. (그림 29참조)

(5) 대수(大首)

궁정 의식용의 발양(髮樣)으로 오늘날의 가발과 같은 것으로서 여러 가지 수식이 가해져 있으며 이를 쓰고 그 위에 또 수식을 더 하였다. 비녀는 여러 개를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대수는 사치의 극을 이루었던 얽은머리의 형태였으며 발제개혁이 단행된 영·정조이후에 크게 줄어 본래의 머리모양만 얽은머리를 하거나 나무로 만든 띠구지를 다래대신 사용하였다.(그림30참조)

(6) 새앙머리

최윤영은 이에 대해서 궁정의 아기 내인의 예장용 머리 모양으로 보았다. “두발(頭髮)을 두 갈래로 갈라서 땡고 이것을 다시 올려 아래위로 두 덩어리가 지게 잡아매어 여기에 봉 뒤꽂이나 호접 뒤꽂이 등을 꽂고 장식하였다”⁷⁹⁾는 것이다⁸⁰⁾



〈그림 34〉 큰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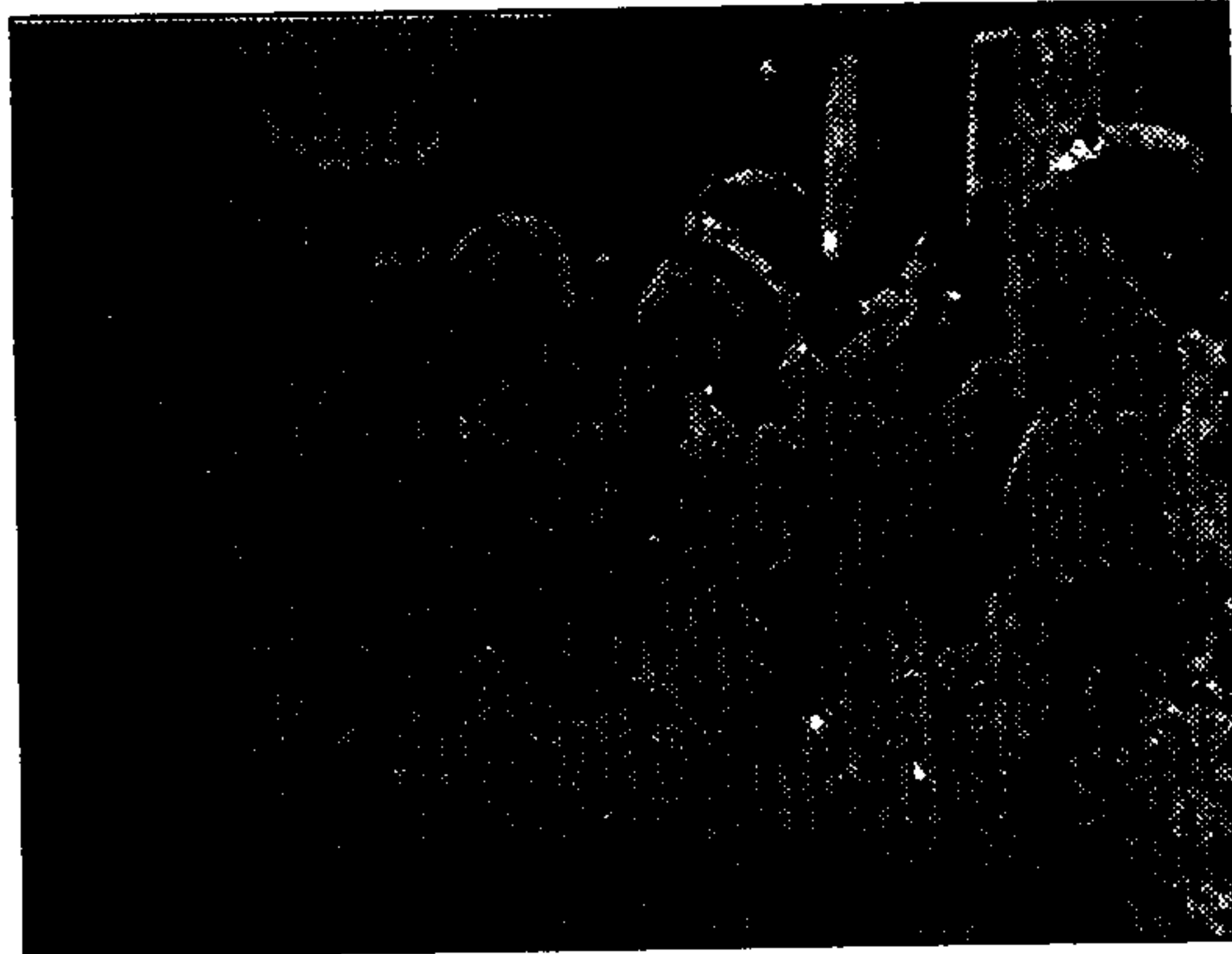
〈그림 35〉 어여머리

79) 최윤영, 『우리나라 여자두식(頭飾)과 일본여자 두식의 비교연구』, 원광대 대학원 석사논문.

80) 정영숙, 『조선시대부인용머리 장식구 紋樣에 관한 고찰』,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그림 36> 조심머리



<그림 37> 첩지머리



<그림 38> 대수



〈그림 39〉 새앙머리

2) 수식(首飾)

조선시대 여인들이 몸을 단장하고 입는 옷의 맵시를 더 한층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꾸민 수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비녀나 땡기는 머리를 정리하거나 엮을 때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장식의 역할도 하였다. 첩지나 떨잠은 부녀가 예장 할 때 머리 위에 장식하는 장식품의 일종이었다.

친잠례는 궁중여인들의 가장 큰 예식이었던 만큼 가장 좋은 장식품으로 연출하였다.

① 화관(花冠)

원래 중국의 것으로 신라 문무왕 때 여자 복식으로 들어온 것이며 국속화되어 형식이 작아져서 관모(冠帽)라기 보다는 미적 장식품으로서의 수식(首飾)이 되었다.

옛날에는 궁중 내연(內宴)에서 기녀(妓女), 동녀(童女), 무녀(舞女), 여령(女伶)들이 썼는데, 영조·정조대 발제개혁(髮制改革)과 더불어 가채(加髻)대신 화관이나 족두리를 쓰게하여 일원화되었다.

조선왕조 말엽에는 정장할 때는 족두리(簇頭里), 화려하게 꾸밀 때는 화관을 썼으며 서민들도 혼례(婚禮)때 이를 착용하였고 대개 활옷, 당의 착용시 썼다.

② 족두리(簇頭里)

몽고에서 사부녀(士夫女)가 외출할때 쓰는 모자로서 고려 후기부터 궁중에 들어와 조선왕조 궁중양식으로 남았으며, 관모(冠帽)라기 보다는 미적 장식품으로서의 수식이 되었다.

일명 족아(簇兒), 족관(簇冠)이라고도 하였는데 검은 비단으로 만들어 아래는 둥글고 위는 여섯 모로 되었으며 숨이 들어 있고 그 가운데를 비게 하여 머리에 쓰게 한 것으로 장식이 없는 '민 족두리', 산호주(珊瑚珠), 밀화(密花)구슬, 진주를 꿰어 만든 '꾸민 족두리'가 있다.

③ 비녀(잠)

족진 머리가 일반화되면서 비녀의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그동안 가채에 치중했던 사치가 비녀로 오게 되어 그 모양이 다채로웠다.

상류층에서는 금은주옥(金銀珠玉)으로 된 비녀, 서민층에서 목골각(木骨角), 각(角)등으로 된 비녀를 사용하였으며 잠두(蠶頭)의 수식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있었다.⁸¹⁾ 조선조의 신분계급 의식때문에 상상의 동물이 조각된 용잠과 봉황잠은 당시 신비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가장 으뜸으로 평가되어 봉황잠은 주로 왕세자비가, 용잠은 주로 왕비만이 꽂았다.

“그밖에 사대부가에서는 혼례식을 비롯한 각종의식에 용잠의 사용이 허락되었으나 서민들에게는 혼례 때만 사용이 허용되었다.”⁸²⁾ 비녀는 머리 장식품에 지나지 않으나 멋을 더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치풍조가 만연된 이후 의복과 계절

81) 백영자, 앞의 책, 295쪽.

82) 조효숙, 앞의 책, 429쪽.

에 따라 달리 꽃았다.

궁중의 내명부나 외명부는 큰 머리 예장 때 띠꽃이 비녀를 하나 더 사용하였다.

④ 첩지

첩지는 부녀의 예장(禮裝)시 머리 위 가리마를 꾸미는 장식품으로, 단 쪽진 머리에만 가능하였다. 첩지의 모양은 봉과 개구리 두 종류인데, 왕비는 도금 봉첩지를 사용하였고, 왕비 이외의 궁중 여인과 외명부는 은 혹은 흑각 개구리첩지를 사용하였다. 원래 궁중 여인은 항상 첩지를 부착하고, 일반 여인은 예장할 때만 하는 것이나 평상시에도 하는 예가 없지 않았다.

⑤ 떨잠

떨잠은 '떨철반자'라고도 부르며, 이 역시 왕족과 상류층 부인이 예장에만 사용했다. 형태는 원형, 네모형, 나비형이 있고 하나 혹은 셋을 꽃는다. 셋을 꽃을 때는 큰머리 뒤 중앙에 하나, 양쪽에 하나씩 꽃는다. 옥판에 칠보 장식을 하여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데, 걸음을 옮길 때 저절로 떨리는 특징이 있다. 보기 드문 예로 떨철반자와 비녀가 혼합된 경우가 있다. 이것은 비녀머리 대신에 떨철반자를 부착한 것이다.

⑥ 첨(尖)

첨은 뒤틑이 일종으로서, 몸통은 은이고 끝이 뾰족하다. 반대편 부분에는 보패류가 장식되어 있는데, 산호·비취·밀화·금패·호박 등으로 연꽃·국화·나비·천도 모양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것을 머리 뒤편에 뉘여 꽃으며 보패류 끝부분만이 보여 아름다운 보석이 박힌 듯한 느낌을 주나, 위급시에는 이것으로 남자의 코뼈 안쪽을 찔러 복상사(腹上死)를 예방하였으므로 사치스런 장신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⑦ 빗치개

빗치개 역시 가리마를 가르거나 빗살의 때를 빼는 정발구이다. 그러나 은에 파

란을 입히고, 둥근 머리 부분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뒤꽂이로 사용한 예가 많다.

⑧ 댕기

댕기는 남녀 공용으로서 머리를 묶는 정발구의 하나다. 남자는 총각일 때 땀은 머리 뒷부분에 짧은 댕기를 달았다. 처녀 및 부인용 댕기는 형태와 용도에 따라 제비부리댕기, 금박댕기, 도투락댕기, 고이댕기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큰 댕기는 평상용이 아닌 예장용으로서, 활옷 차림에 사용한 것이다.

이 밖에 액을 물리치기 위하여 어린아이에게 도끼를 차게 하거나, 아들 낳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소형의 가지 혹은 고추 장식품을 달기도 하였다. 범발톱을 주머니에 넣어 패용한 예는 더욱 많았다.

⑨ 뒤꽂이

뒤꽂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송이 꽃모양에 뿌리 부분이 뽕족한 것을 가리킨다. 몸체는 대부분 은이며, 머리 부분은 칠보 혹은 파란으로 장식하였다. 연봉, 국화, 천도 등 머리 모양이 다양하다. 이와 모양이 전혀 다른 뒤꽂이도 있다.

뒤꽂이 문화는 1997년과 1998년도에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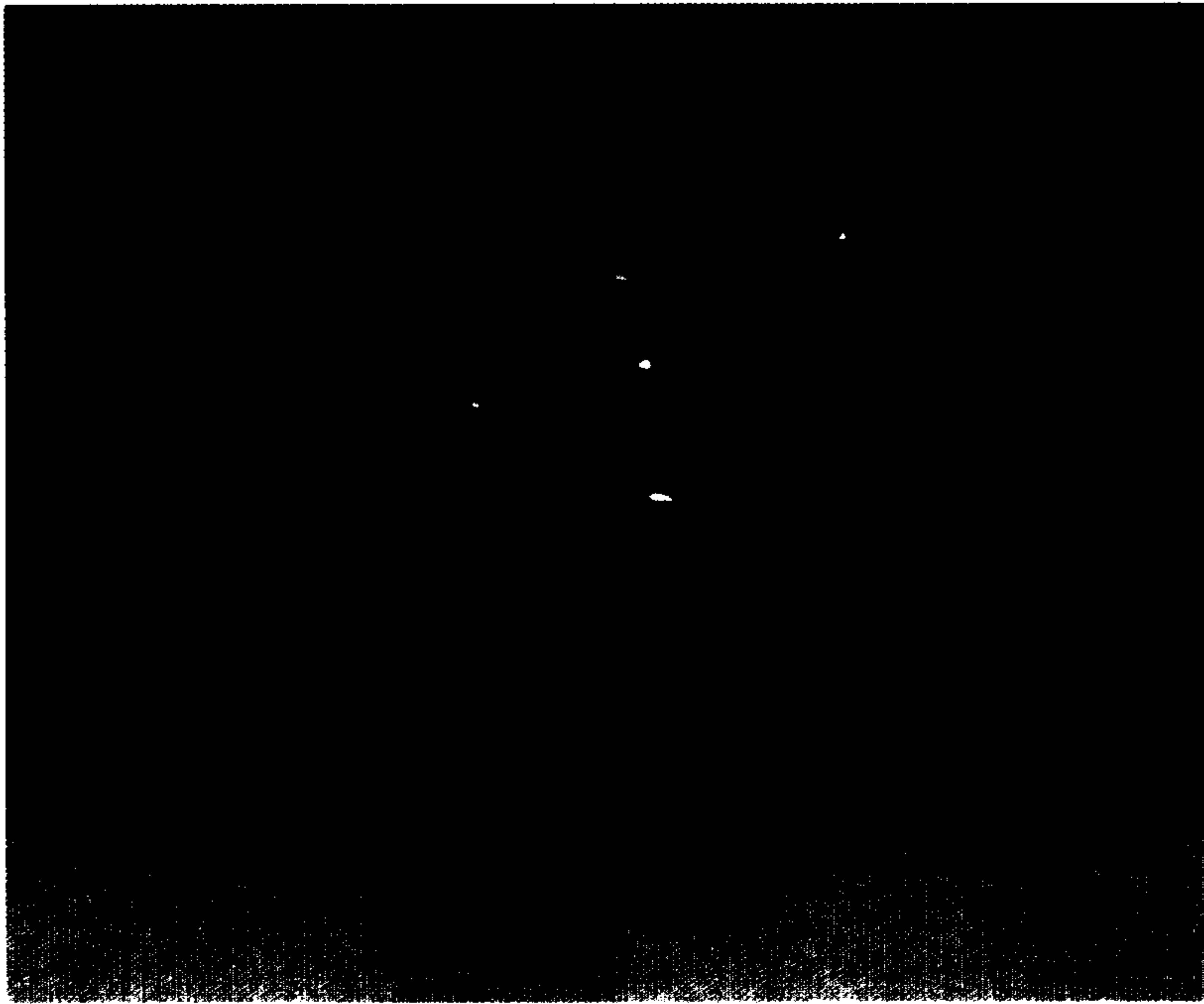
⑩ 귀이개

귀이개는 귀지를 파내는 도구이지만 은에 파란을 입혀 장식성을 높임으로써 뒤에 꽂았기 때문에 뒤꽂이 장식품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뿌리 부분이 뽕족하여 침과 같이 침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침과 아울러 통 안에 든 것도 있다.”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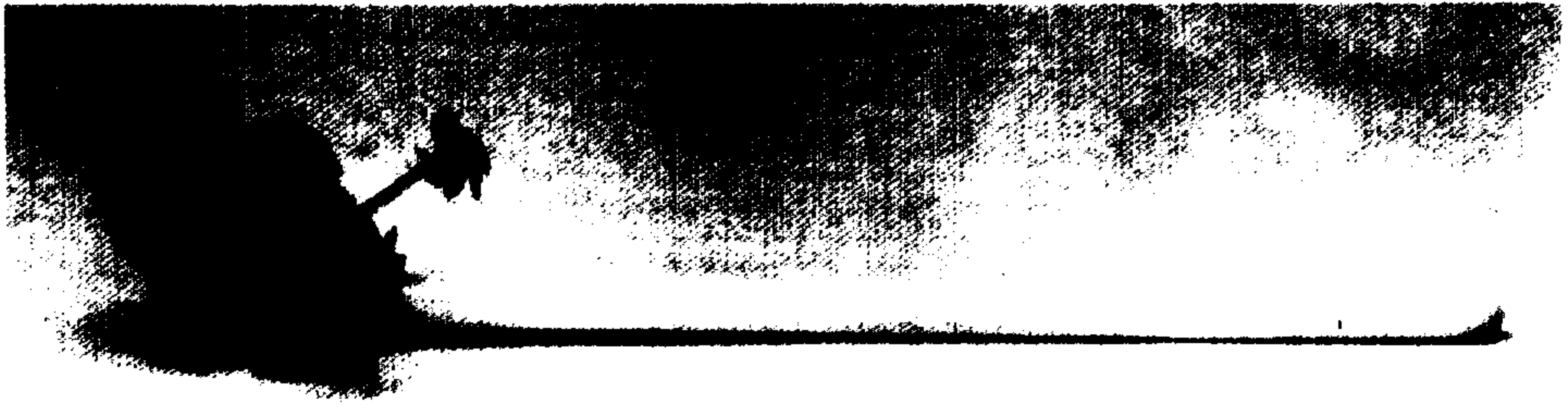
83) 전완길, 앞의 책, 158-1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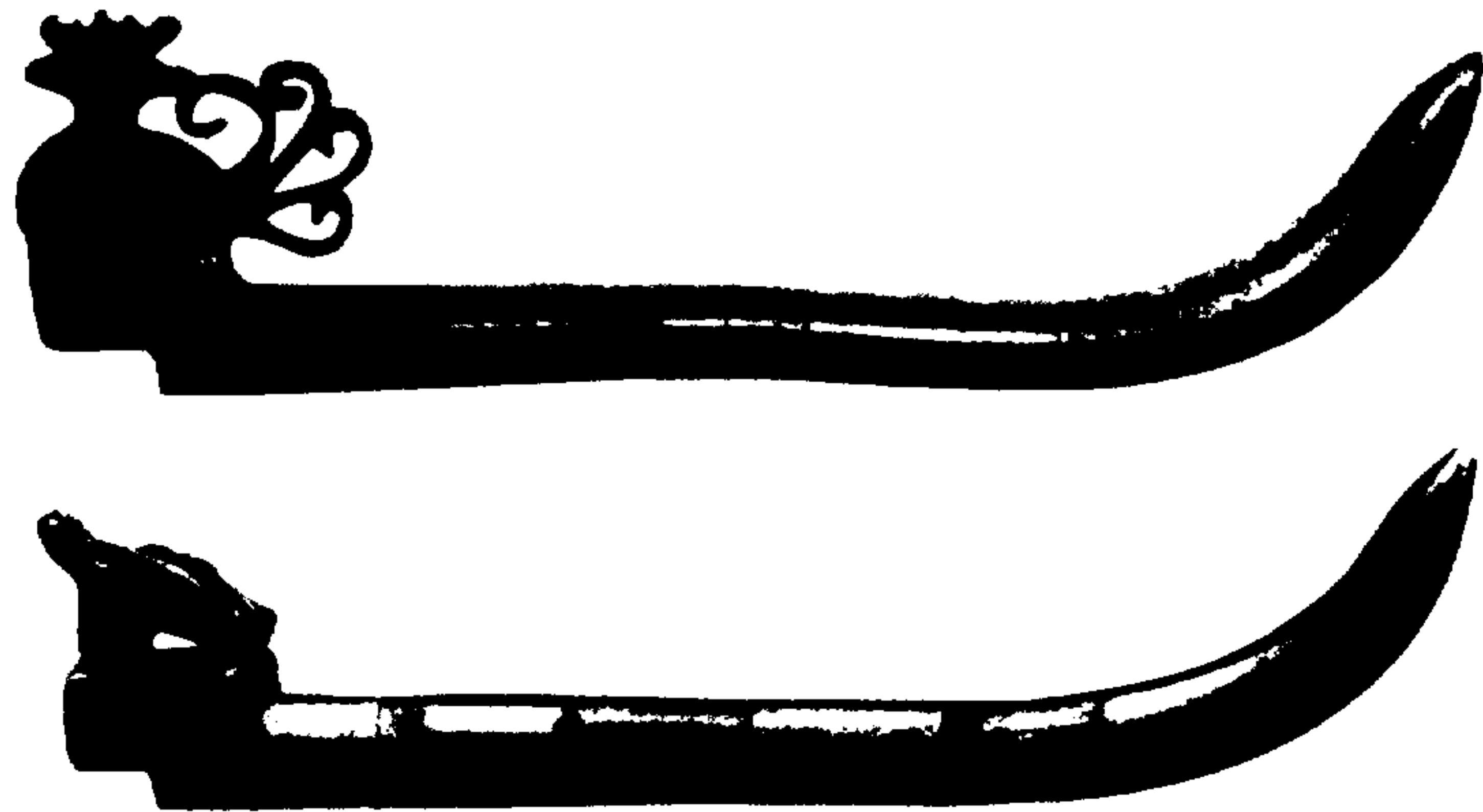
〈그림 40〉 화 관



〈그림 41〉 족 두 리



〈그림 42〉 비녀



〈그림 43〉 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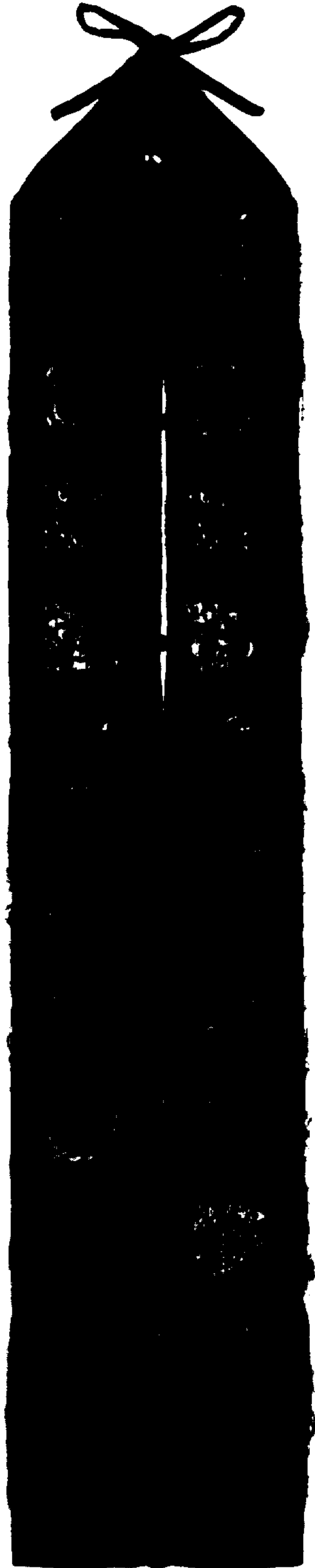
< 그림 44 > 떨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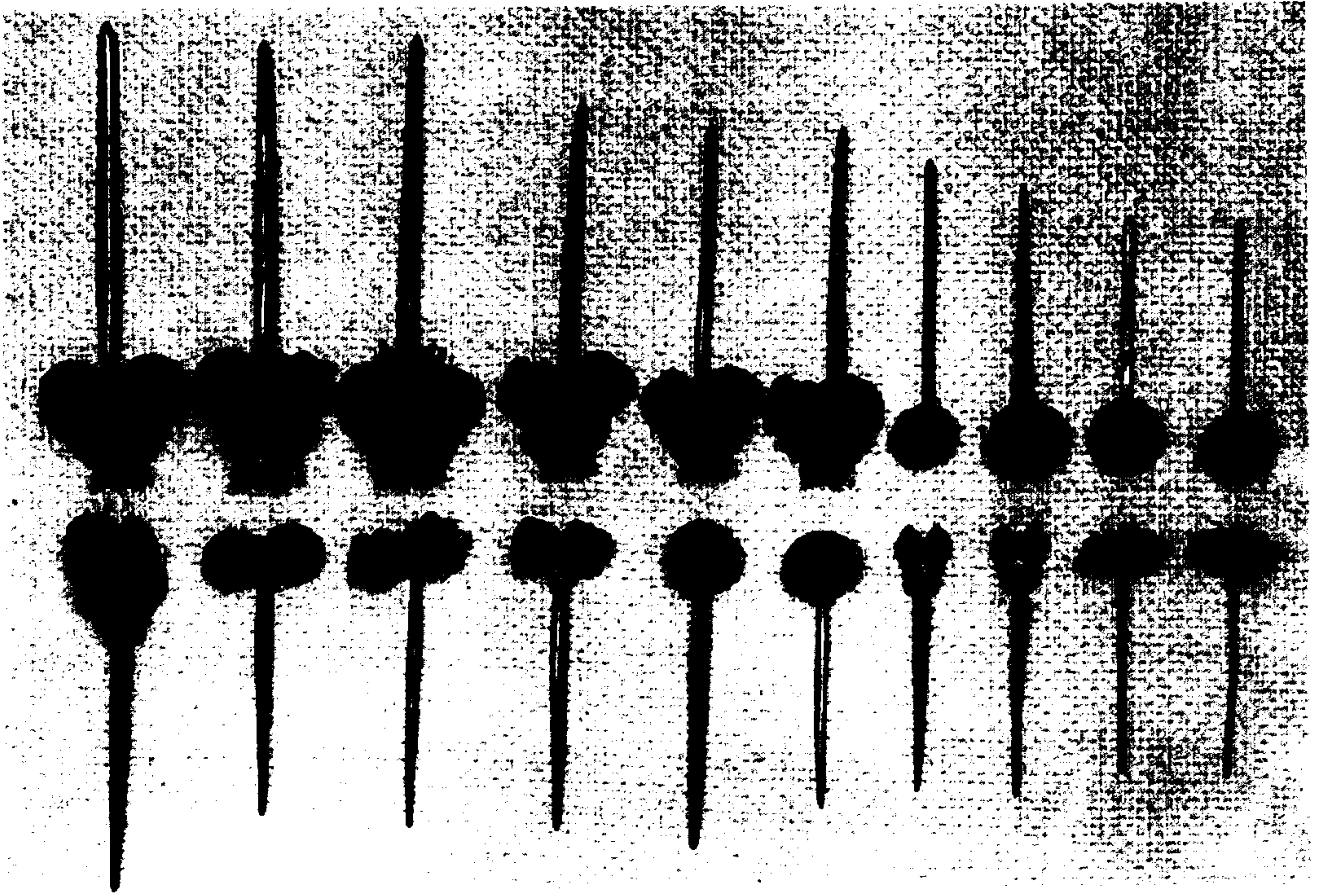
< 그림 45 > 첨 (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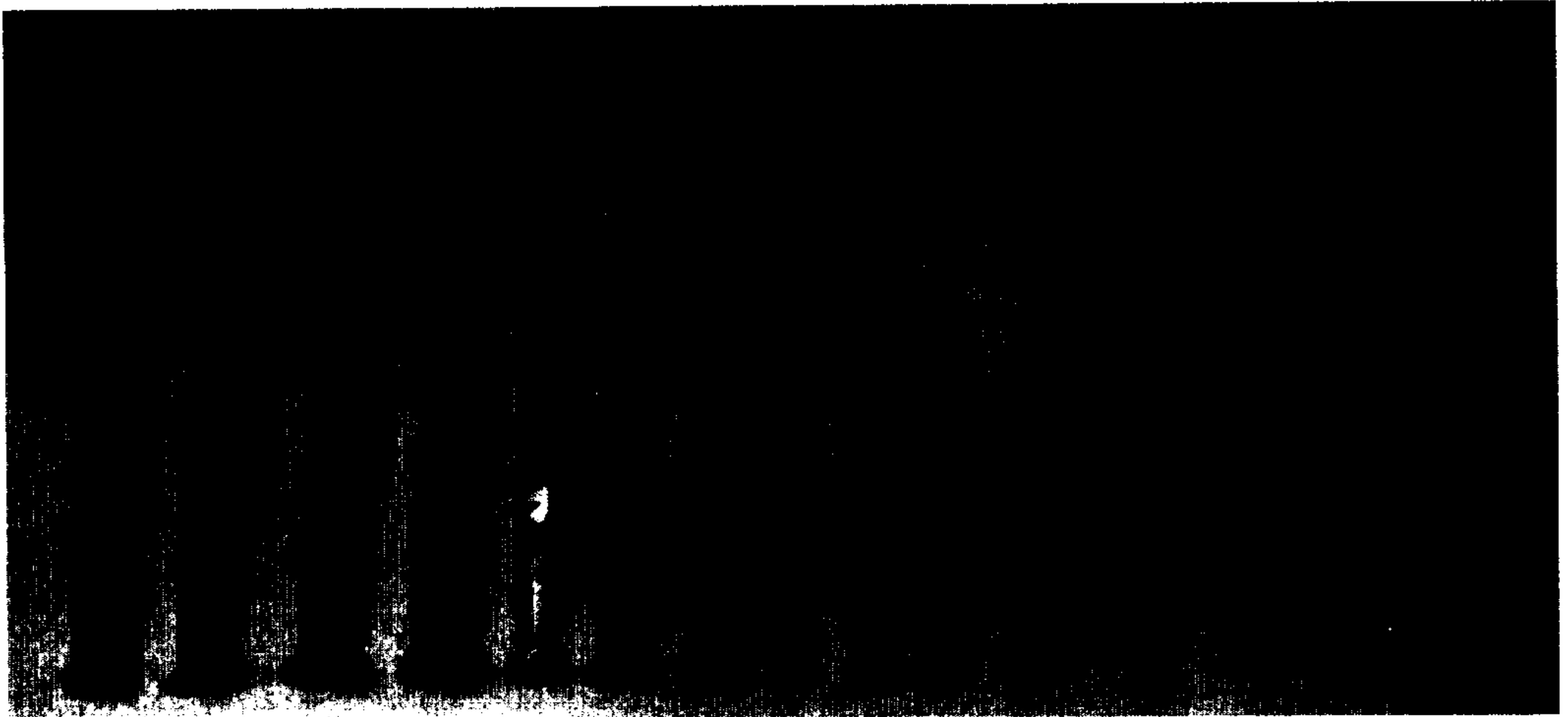
〈그림 46〉 빛 차 개



〈그림 47〉 땡 기



<그림 48> 뒤 꽃 이



<그림 49> 귀 이 개

3. 장신구

1) 단추

단추는 저고리에 옷고름이 있으므로 필요가 없었으나 원삼 등 예복에 필요하였다. 그러나 마고자 등 겹옷에 단추를 사용하는 외에 멋을 내기 위하여 저고리에 옷고름대신 단 예가 없지 않다. 금, 은, 옥, 은파란 등으로 만든 예복의 단추에는 나비, 국화, 박쥐문양이 사용되기도 하였다.”⁸⁴⁾

2) 노리개

노리개는 우리나라 여성의 여러 가지 장신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여성을 가장 아름답게 치장해 준 장신구이다.

전완길은 이에대해 노리개는 저고리의 겹고름이나 안고름, 치마허리에 찬다. 또는 붉은 비단띠를 만들어 저고리 밑 치마에 띠고 여기에다 여러 개의 삼작 노리개를 패용하기도 하였고 노리개의 패용은 계절에 따라 달랐다.⁸⁵⁾고 하였으며 안명숙과 김용서 공저의 「한국복식사」에서는 친잠례와 관련을 짓고 있다.

친잠례 가 열리던 3월에는 옥이나 구슬 등의 색이 엷은 밀화·공작석·산호·천도삼작등이 패용되었다.⁸⁶⁾ 또한 노리개의 패용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다. 삼작노리개는 궁중에서 왕비와 세자빈 또는 왕의 후궁, 외명부, 공주와 옹주, 또는 왕자군 부인, 종친의 부녀와 양반부인에 한하였다. 중삼작노리개는 궁중과 상류계급에서 찻다. 순금제품은 왕족에게만 한하였다.

3) 지환(指環)

상대에 다양한 형태로 발달했던 지환은 조선시대로 오면서 짧은 저고리에 우아한 선 맵시에 어울리게 지환의 형태가 단순화되면서 발달하였다. 지환에는 가

84) 전완길, 앞의책, 158쪽.

85) 전완길, 앞의책, 138쪽.

86) 안명숙·김용서, 「한국복식사」, 예학사, 153쪽.

락지와 반지가 있다. 가락지는 두 개를 쌍으로 하여 금·은·비취 등으로 만들며 기혼부인이 사용했다.

반지는 기혼·미혼에 관계없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계절에 맞추어 끼었는데 봄에 행해진 행사이기에 파란지환을 끼었다. 봄·가을에는 파란지환, 겨울에는 금지환, 여름에는 옥지환 등을 끼었다.

4) 귀고리(耳飾)

고려시대에 들어서 귀에 구멍을 뚫어 작은 환을 다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사용하여 조선조 전반까지 성행하였다. 안명숙은

선조 때까지 남녀를 막론하고 사용되다가 선조의 혼계가 있는 후에는 일반 양반층의 부녀자들보다도 서민층의 부녀자들과 기녀들이 즐겨 달았으며, 여인들의 이식은 형태를 달리하였다. 즉, 귀고리가 귀걸이로 바뀌면서 평상시 이식하는 습속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남자의 이식은 볼 수 없게 되었다.⁸⁷⁾

고하였다. 선조 이후 친잠례 행사에서 이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요즘 와서도 귀걸이는 남녀가 공히 차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양에서의 영향이지만 우리나라도 일찌기 이를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아야겠다.

87) 안명숙·김용서, 앞의 책, 157쪽.



〈그림 50〉 노 리 개



〈그림 51〉 지 환

IV. 친잠의례 구조의 패션이벤트적 구성의 응용

21세기 새로운 화두로 떠올릴 수 있는 전통복원 행사 중 분장과 패션이 접목된 친잠례를 접하고, 이를 통하여 이행사의 시대별 국가적 의미와, 구조, 그 당시 최상류층 여인들이었던 왕비와 내·외명부 등의 친잠의례 시 행해졌던 화장법, 수식, 치장 등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 친잠례는 현대패션쇼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어떤점이 유사한 것인가?

첫째, 의상에 있어서는 친잠례 행사 중 선잠의, 채상의, 조현의, 수건의 등의 의식마다 복식을 달리 하였다는 것이며, 특히 채상의에는 상복(常服)으로 개복하고 행하고 있어 채상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채상이 끝나면 다시 예복과 수식을 가하였다. 수건의는 수식을 가하지 않는 예복으로 되어 있어 수견시 간편하도록 예복만으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의식에 맞도록 여러벌의 의상이 준비되어 갈아입었다는 것과 시대별로 왕비의 국의 색상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성종조의 친잠복은 황색이며 명부의 조잠복은 아청색이다. 광해조는 왕비의 친잠복이 유청색 명부의 조잠복은 아청색이며 영조조의 왕비 친잠복은 청색이었다.

둘째, 무대는 시대에 따라 창덕궁이나 경복궁의 친잠단에서 행해졌다. 즉, 항상 궁내의 고정 무대가 있었다는 점이며,

셋째, 모델로는 왕비와 공주·옹주 등 내·외명부, 시중 드는 상궁 등이며 인원이 부족한 경우 여기나 의녀등이 차출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궁내는 물론, 일반의 관심을 끌었을까 하는 점이다.

넷째, 분장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대표적 화장법은 담장이었으나 큰 예식이었던 만큼 그 당시 전문적 미용사 역할을 담당했던 수모들의 도움을 받아 조선시대의 신부화장처럼 뚜렷하게 꾸민 화장법인 응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악세서리와 소품 또한 수모의 도움을 받아 치장하였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저마다 자신의 지위와 계절에 맞는 비녀, 노리개, 지환, 가चे, 딸잠, 첩지, 땡기 등으로 장식하였다는 점이다.

여섯째, 시간은 기록에 대昕(大昕)의 아침으로 나와 있으므로 오전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조 때는 거국적 행사로 오후 늦도록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음악은 출궁, 환궁, 단을 오르내릴 때 모두 음악이 연주되었으나 국가우환시 음악이 감해지기도 하였다.

여덟째, 관객은 왕과 문무백관이었으며 이로서 친잠례는 국가적 궁정패션쇼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잠례는 그 시대 궁중 여인들의 화려함의 극치와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대대적인 패션쇼였다.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친잠례의 행사규모가 정해지기도 하였으며, 왕비는 본인이 주관하는 이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세를 과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는 성종때의 폐비 윤씨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농사와 함께 양잠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조선시대 역대 왕실에서는 권농과 권잠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왕이 직접 밭을 가는 친경과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는 친잠례를 행하여 신하와 백성들에게 솔선수범 하고자 하였다.

그 중 왕비의 친잠례는 한국의 전통적인 여인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복식뿐 아니라 분장에 있어서도 극대화시켜 표현한 거국적 행사라 할 것이다.

조선시대 마지막 친잠례는 1910년 순종 효황후의 약식화한 수견례이다. 그러나 한일합방이후에도 여러 차례 약식화된 어수견례가 진행되었다. 이 약식화된 행사에는 왕비와 상궁들의 의상이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매우 간략하게 지내진 것으로 사진 등의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6, 47, 48 참조)

이처럼 친잠 행사는 해방 전까지 창덕궁에서 행해졌으며, 가장 최근 기록으로는 잠업 주산지에서 박정희 전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가 1972~74년에, 전두환 전대통령 영부인 이순자여사가 1981년에 친잠행사와 비슷한 권잠행사를 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49,50,51,52 참조)

그 후 친잠례 행사는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1999년 12월 '한국 의생활 문화원'의 오아름 주도하에 "제1회 조선왕조 친잠례 재연"이라는 명칭으로 남산골 한

옥마을에서 다시 복원 재연되었다. 그후 2000년 10월 재 고증을 거쳐 제 2회 행사를 같은 장소에서 거행하였다 이는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측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친잠례 재연행사는 2001년 제 3회 행사부터 원래의 친잠장소였던 경북궁에서 열릴 예정이며 패션이벤트적 행사로서 2000년 한일엑스포 교류전 등에 초청되어 일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선잠제 의 경우 선잠단이 위치하고 있는 성북구에서 성북구청 주관으로 지난 1994년 5월, 85년만에 재연하였으며 그 후 매년 정기적으로 선잠제 를 지내오고 있다.

이 행사는 성북구의 가장 큰 전통문화 재연 행사가 되었으며, 성북구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고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 축제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낸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산골 한옥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친잠례 행사의 장소를 역사적 의미가 깊은 창덕궁이나 경북궁에서 재현하고 왕비 역을 영부인이나 왕족의 후손등이 맡는 등 국가의 주도 아래 대대적 행사로 온 국민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적 축제로 정착시킨다면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것이다.

궁중문화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친잠례 행사가 매년 개최되는 거국적 전통 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한다면, 이는 세계 유수의 전통문화축제 행사에 결코 뒤쳐지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예술적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세계에 꽃 필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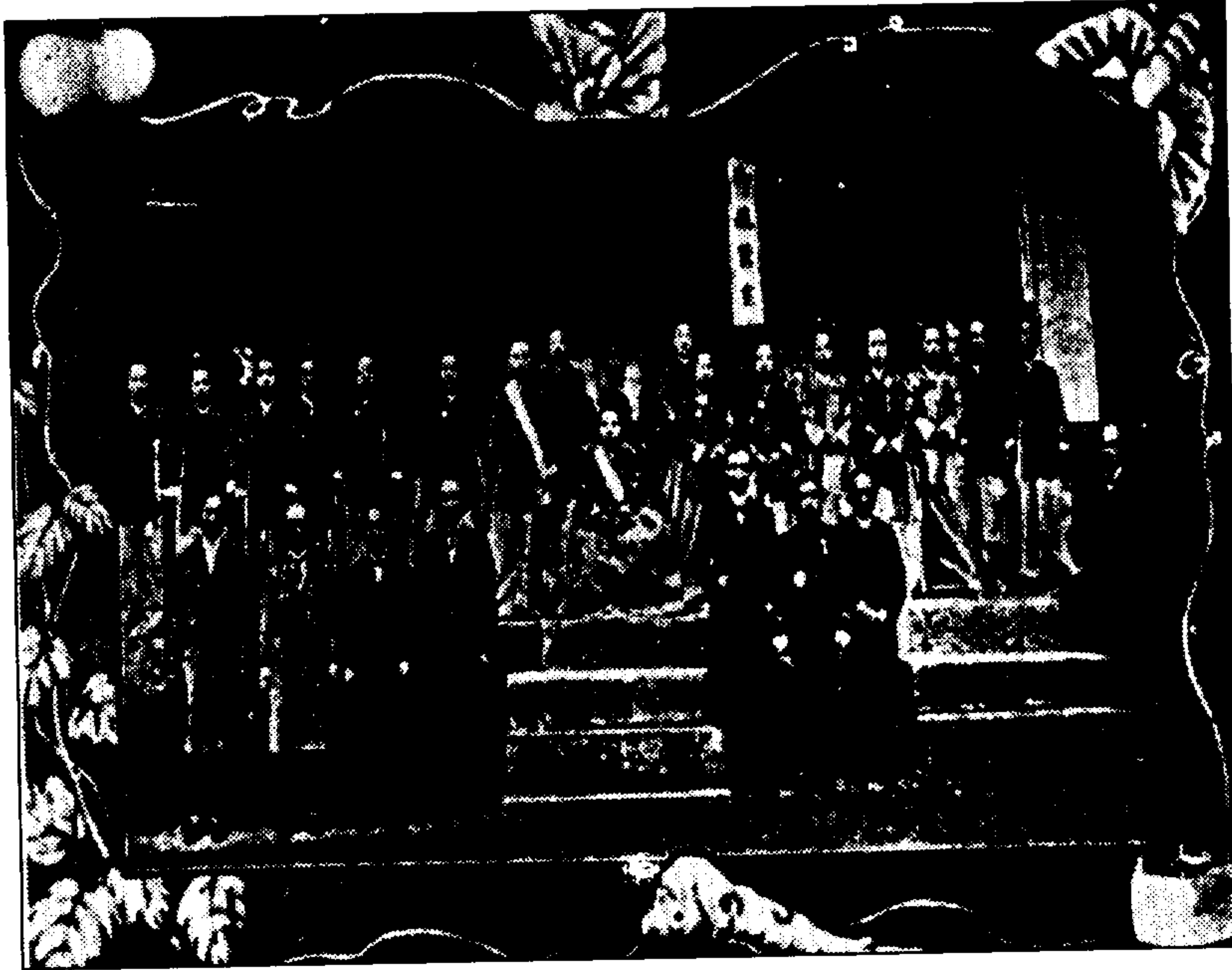
첫째, 철저한 고증을 거친 장소, 의상, 수식, 치장, 집기, 동원 인원 등이 필요하며

둘째, 이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반사항을 총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화정책 사업으로 관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북구에서는 친잠례 행사의 선행행사인 선잠제 만을 단독으로 치를것이 아니라 복원된 친잠례 와 함께 치를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온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불러 낼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문화사업, 관광사업으로 육성되는 축제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10년 이후 약식화된 친잠례 행사



<그림 52> 조선왕조 순종(純宗) 황후(응희4년)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의 친잠후(親蠶候) 기념촬영 (1910년 6월 25일)



<그림 53> 조선조 순종효황후의 친잠수례(1924)



〈그림 54〉 1930년 6월 16일 순정효황후의 친잠후 기념촬영



〈그림 55〉 제1회 양잠시범대회(박정희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1972. 6. 9)



〈그림 56〉 제2회 양잠시범대회 (박정희대통령 영부인)
(1973. 6. 5)



〈그림 57〉 제3회 양잠시범대회 (박정희대통령 영부인)
(1974. 5. 28)



〈그림 58〉 전국양잠시범대회 (전두환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1981)

V. 결 론

친잠례의 역사적 조망을 해본 결과 조선전기는 개국이후 시설부족, 경제난 등의 이유로 많은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자주 행하지는 못하였다. 제9대 성종기에 이르러 친잠례가 간소한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조선후기는 제21대 영조기에 이르러서야 조선왕조 500년사 중 가장 거국적 행사로 준비되었으며 모든 의식절차는 삼조실록을 고찰하여 행해진 대대적 의례행사였다.

그러나 영조기 이후 격식을 갖춘 친잠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고종·순종조에 약식화된 어수견에 이후 현재까지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볼 때 친잠례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잠례는 거국적 행사이기에 화장과 치장이 대단히 성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기록은 문헌상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화장법으로는 수모의 도움을 받아 그시대 최상의 화려한 화장법이었던 응장이 사용되었을 것이며, 모든 치장은 국가의례 시 사용된 예장용으로 장식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친잠례는 패션이벤트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는 이 행사를 과거의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합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백제시대 우리에게서 잠업을 전수받은 일본은 현재까지도 매년 친잠례 를 황태자비 주도하에 지내고 있다. 왕실의 전통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자긍심과 일본잠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일본에 비하여 아직까지 우리는 유구한 잠업사를 대표할 만한 대대적 행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새롭게 복원되고있는 친잠례 행사를 국가 주도하에 문화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시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으며,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앞으로도 후손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때이다.

21세기는 고도의 정보화 시대이자 지구촌 시대로 발전되면서 국가간의 문화적 교류도 폭넓고 다양하게 이루어질것이며 그만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 또한 어려울것이다. 이럴때일수록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 는것이 매우 중요하고 풍부한 삶의 원천이 된다 할수있을 것이다. 옛 조상의 얼이 전해져오는 전통문화행사를 재현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을 계승, 발전 시키는일은 앞으로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할 사업이다.

문화란 그 당대 생활의 일면으로서 우리의 생활과 결부되고 우리의 정신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알고 이를 외국에 알리며 우리의것을 보다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잠례 외에도 다채로운 전통문화행사를 많이 복원시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상품을 외국에 소개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일제 침략, 한일 합방, 6·25전쟁 등의 순탄치 않은 여러 국난을 겪으며 민족의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현대에, 과거 우리 조상에 대한 자긍심 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백성을 사랑했던 조상의 얼을 이어 갈 수 있는 친잠례 복원행사가 말로 우리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 생각되어진다.

참고문헌

- 고복남, 『한국의복의 유형과 양식』, 집문당
『국조 오례의』 법제처.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답게, 1998
- 김동욱, 이조전기 복식연구, 한국문화원, 1963.
-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 문화사, 1973.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사, 1998.
- 김영진, 조선시대 농업과학 기술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김원룡, 한국미술사, 범문사, 1973.
- 권오창, 인물화로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현암사.
- 박병선 저, 조선조의 의례,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85.
- 박소동역, 『국역친경·친잠의례』, 민족문화추진, 1999.
-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서울 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95.
서울육백년사(민속편) 제1권,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1990.
- 석주선, 한국복식사, 이우사, 1971.
- 안명숙, 김용서 공저, 한국복식사, 예학사
-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이대출판부, 1971.
-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99.
- 조효순, 한국 복식 풍속사연구, 일지사
한국민속대관(1~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복식사자료선집, 상고 고려편, 김영숙 편저, 1985.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장업 50년사, 대한화장품공업협회, 1998.
한국풍속화의 발달, 한국의 미(19), 1985.
- 한국학 데이터 베이스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 1995, 1997.
- 김상미, 조선조 비녀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1.
- 김소진, 한국 전통복식에 나타난 색채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1992
-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화장문화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박성실, 『친잠례 및 친잠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9.
- 송민정, 우리나라 전통 화장문화에 고나한 연구, 이화영대 대학원석사논문, 1991.
- 유송옥, 조선시대 의례도의 복식연구, 홍익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6.
- 유희경, 이조 여인의 수식, 한국 문화연구 논총 20집
- 이숙연, 미니멀리즘을 활용한 화장에 관한 연구, 한성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정영숙, 조선시대 부인용 머리 장신구 문양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1987.
- 최윤영, 우리나라 여자두식과 일본 여자두식의 비교연구, 원광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 GEO, 4월호
- National Giographic, 1984. 1월호
- 김영숙, 조선조말기 왕실복식,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95.
- 김용숙, 이조후기 내인생활연구, 숙대 아세아 여성연구 제3호, 1964.
- 대한잠사회, 한국잠업사, 1989.
- 선잠제, 성북구, 1997.
- 여성시대, 1985, 5월호
- 잠사, 대한잠사회, 1983. 1.
- 조선지잠업, 대한잠사회 제공, 1929.
- 잠상촬요, 선잠제, 1984.
- 한국잠업사, 대한잠사회, 1989.
- 향토, 서울 43호, 서울특별시, 1985.

■ 부록

우리나라 친잠례 관련 연혁표

년 대	시 대(왕조)	양 잠 관 계 사 실(史實)
B.C2333~2240	단군조선시대	· 뽕나무를 심고 누에치기를 장려(勸農桑設 治蠶 勸田蠶治)
1122	기자시대	· 백성에게 예의와 누에농사, 직조방법을 가르침.
200	삼한시대	· 마한, 진한, 변한 - 누에치기를 장려
41	신라, 박혁거세왕	· 농사와 양잠을 장려 (왕비와 육부춘을 순방 농상을 독려)
37	고구려, 동명성왕	· 누에치기를 권장(養蠶 勸獎)
AD. 20	백제, 온조왕	· 농사와 양잠을 권장 (農桑 勸獎)
199	백제, 초고왕	· 양잠과 직조방법을 일본에 전파
918	고려, 태조	· 농사와 양잠을 권장 (고려 역대왕 양잠장려)
1015	고려, 현종	· 누에치기를 장려(제도, 부, 현에 뽕나무 식재를 권장)
1392	조선, 태조	· [종상지법]을 제정, 누에치기를 적극장려(조선역대왕 양잠장려)
1400	조선, 정종	· 선잠제향 거행(서울 성북2동 소재)
1411	조선, 태종	· 후비 친잠례거행
1415	조선, 태종	· 한상덕이 [양잠경험촬요]를 편찬
1418	조선, 태종	· 왕비 친잠례거행
1429	조선, 세종	· 각도에 잠실 설치(잠실도회)
1450	조선, 문종	· 잠실에 별좌배치, 뽕나무 묘목재배 권장. 빙점에 오직 뽕나무 묘목반 심도록 조치
1455	조선, 세조	· [종상법]을 발포하고 뽕나무식재를 권장(대농300주, 중농200주, 소농50주)
1477	조선, 성종	· 선잠제향과 친잠례를 거행토록 함
1493	조선, 성종	· 왕은 전적에서 친경례(밭갈이)를, 왕비는 창덕궁에서 친잠례(누에치기)를 거행
1501	조선, 연산군	· 김안국 “잠서언해” 간행
1504	조선, 연산군	· 왕비 친잠례거행
1513	조선, 중종	· 친잠례거행
1529	조선, 중종	· 친잠례거행
1532	조선, 중종	· 어친잠실 건립
1553	조선, 명종	· 친경례거행
1557	조선, 명종	· 진문정거행
1571	조선, 선조	· 친잠례거행
1616	조선, 광해군	· 선농, 선잠제거행
1619	조선, 광해군	· 친잠례거행
1655	조선, 효종	· 신숙이 [농가집성]을 편찬
1767	조선, 영조	· [친잠의궤]와 [장종수견의궤]를 편찬 채상예와 친잠예, 수여를 행함
1770	조선, 영조	· “정해친잠비” 세움
1894	조선, 고종	· 농사와 누에치기를 지도하는 관청을 설치

년 대	시 대(왕조)	양 잡 관 계 사 실
1900	대한제국 광무	· 궁내부(宮內府)에 잠업과 시험장을 설치(11월)
1902	대한제국 광무	· 수수원(水輸院)에 공잠과(公蠶課), 잠업과(蠶業課) 설치
1906	대한제국 광무	· 권업모범장 설치, 대한부인회에서 잠업여자교육을 실시
1909	대한제국 융희	· 순종황제 동적전에서 친경하고 뽕나무를 심음(4월5일)
	대한제국 융희	· 순정효황후가 6월1일 권업모범장시찰, 6월 21일 어수견식을 거행
1910	대한제국 융희	· 한국중앙농회에서 [잠업지 장려] 발행(7월25일), 순종효황후 어수견식거행
1920	일제 강점기	· 조선잠사회 설립(10월)
1924	일제 강점기	· 순조효황후 어수견에 거행
1925	일제 강점기	· 누에고치 100만석(32,000톤) 생산계획 발표(5월 10일)
1925	일제 강점기	· 순조효황후 어수견에 거행
1929	일제 강점기	· 순조효황후 어수견에 거행
1930	일제 강점기	· 순조효황후 어수견에 거행
1933	일제 강점기	· 순조효황후 어수견에 거행
1934	일제 강점기	· 누에고치 22,991톤 생산(남북한)
1939	일제 강점기	· 순조효황후 어수견에 거행
1939	일제 강점기	· 선잠단을 보물 제17호로 지정
1946	미군정	· 농림부 잠업과 설치 (3월 29일)
1950~1956	대한민국	· 이승만 대통령 뽕나무 식재를 권장 (외화획득 호소)
1961	대한민국	· 잠업법 공포(12월 27일)
1961	대한민국	· 선잠단지 표지석 설치
1962	대한민국	· 전국잠업대회개최 (서울, 2월 21일)
1963	대한민국	· 선잠단지 사적 제83호로 지정
1966	대한민국	· 박정희 대통령 강원도 잠업시찰(4월 7일)
1972~1974	대한민국	· 대통령영부인 육영수여사 친잠(새마을양잠시범대회, 가평, 청원, 춘천 3회참석)
1976	대한민국	· 누에고치 41,704톤 생산기록(남한)
1981	대한민국	· 대통령영부인 이순자여사 친잠(전국양잠시범대회, 청원)
1982	대한민국	· 농촌진흥청 밀식 뽕밭 조성 평가(9월 16일)
1988	대한민국	· 농림부 뽕나무심기 연시대회(경북 서산 4월13일 농림부장관 뽕나무 시음)
1993	대한민국	· 선잠제향 85년만에 재연 (서울 성북구 성북2동, 5월 15일)
1995	대한민국	· 누에가루로 당뇨병치료제 개발 발표(농진청, 경희대, 3월 22일 보도)
1999	대한민국	· 제1회 친잠제재연행사
2000	대한민국	· 제2회 친잠제재연행사

ABSTRACT

A Study on Fashion elements of Chin Jam Rae ritual led by Chosun Queen

Tak, Yong-joo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So called Fashion show, a feast-like presentation of humans closest environment worn right next to the skin, has official record of its first appearance in Korea in contemporary sense as early as in Autumn of the 1956, at Bando Hotel, Seoul.

If you look closer, however, rituals organized by Chosun Dynasty could well fall into the category of Fashion show or at least Fashion Parade, in terms of its grandeur and magnitudes. Within those rituals, were Chin Jam Rae, or Silk Ceremony led by Queen, which contained all the elements necessary for modern Fashion Show ; Costumes, stage, models, make-up, accessories, props, places, music, time and spectators. In every sense, Chin Jam Rae can be described as the first Fashion Show in Korean history.

The researcher decided to study further on this fashionable ritual led by Chosun Queen, by undergoing literature review of the Chosun Dynasty publications containing records of the ritual and the costumes

including ornamentations and procedure, and studying research materials written on the ceremony. During the process of the study, the researcher found that there is a great need for Chin Jam Rae to be researched further and in a systematical manner for there is not enough study materials on the subject. The researcher then decided to concentrate on the structure of the Chin Jam Rae, as the first public fashion show and make-up style of it, as a way of expression of traditional sense of beauty and spirit of Chosun Kingdom.

Chin Jam Rae is a national ritual ceremony took place within the Palace, participated by the Queen, her closest relatives and aides to promote silk industry and encourage farmers. As the ceremony was led by the Queen, all the participants were women. Everyone in the group, including the Queen, wore national ritual robes dignifying their ranks and virtue and of highest quality. Accompanying hair accessories, make-up and ornaments were also most luxurious and sophisticated ones matching the occasion.

Chapter II of this theses describes the origins, meaning, and changing stages of Chin Jam Rae from Chosun Dynasty to modern times. Chapter III depicts make-up and hair ornaments and styles used in Chin Jam Rae which apparently showcased greatest technique and materials of the time for the Queen. It is also assumed from the study that all the make-ups and hairdos were done by Su-mo, a position within the Palace, who can be called as make-up artists and hair stylists.

For the Style of make-up, it is assumed that Eung Jang, a heavy and strong make-up used also for wedding day, was the style of the make-up for the Queen at Chin Jam Rae. As for the hair-style, it was written that Kun Meori (Big Hairdo with ceremonial hairpins and

ornaments) and Eu-yo Meori (Also Big Hairdo using wooden support and ornamental hairpins) were mainly used. As for the accessories, silver and gold buttons, waist band ornaments using silk knots and jades, rings and eye-rings were used along with variety of hair ornaments such as Bi Nyeo (long and thin metal hair pin) and Hwa Kwan (flower crown).

In Chapter IV, the researcher attempted to adopt the structure of Chin Jam Rae as a modern fashion event so that the Ceremony can be enjoyed by more people.

In Chapter V, the researcher concludes that Chin Jam Rae was not only a event for women emphasizing beauty and virtue but also a national event of great dignity and importance to promote value of tradition and national economy. The researcher suggests in this Chapter that Chin Jam Rae can be served as a vehicle to remind Koreans of the beauty and magnitude of the Korean tradition and spirit. As a practical way of achieving this, the researcher maintains that Chin Jam Rae should be revived as a national wide cultural festival. Then Chin Jam Rae should be considered for inclusion as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 by the Korean Government.